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국경 없는 고대사

- 왜(倭)와 일본을 둘러싼 아시아 네트워크 -
(『越境の古代史－倭と日本をめぐるアジアネットワーク』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 日 科

洪 玟 英

2017年 12月

국경 없는 고대사
-왜(倭)와 일본을 둘러싼 아시아 네트워크-
(『越境の古代史－倭と日本をめぐるアジアネットワーク』
翻譯論文)

指導教授 坂野慎治

洪 玟 英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 年 12月

洪玟英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7年 12月

역자서문

이 책 『국경 없는 고대사(越境の古代史—倭と日本をめぐるアジアネットワーク)』는 머리말, 서장, 1장~7장, 맺음말, 주요 참고 문헌, 관련 연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머리말, 서장, 1장, 2장을 번역했다.

고대는 왕권신수(王權神授)의 시대였다. 왕의 권력은 하늘이 주었다고 믿었던 시대다.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주장은 힘을 잃게 되었고, 대신 ‘국가’와 ‘국민’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 나라의 역사는 일정 영토 안에서 발생한 사건의 집합체이고 국민은 그 역사를 만든 주체라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사적 접근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국민사는 세계사와 지역사에서 한 나라의 역사만 분리하여 파악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가 어려워진다. 또한 복잡하게 뒤얽힌 국가와 국가 간, 지역과 지역 간 교류와 그 결과에 대해 검증할 수 없었다. 칠지도(七支刀)를 예로 들어보자. 칠지도는 백제가 왜에 전해 준 것으로 유명한 칼이다. 이 칼을 국민사적 관점을 통해 이해하면 왜 칠지도가 일본에 전해졌는지, 칠지도의 전래가 양국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일본 국내 사정을 통해서만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연구방식이 등장하였다. 국민사적 연구방식을 떠나 동아시아의 교류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려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고대로부터 국경을 초월해 교류했고 이를 통해 전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쇠퇴했다. 국가 간 사절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타국에 건너가기도 했다. 이렇게 왕래한 인물 한 명 한 명이 양국 간 교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다나카 후미오(田中史生)는 고대 동아시아 각국이 국가와 국가만이 아닌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 개인과 개인을 통해서도 교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러한 작은 교류가 국가와 지역사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역사란, 동아시아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현대 동아시아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번역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지도교수님과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7년 12월

홍민영

초록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뚜렷한 목표를 갖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갔다. 한국은 일본에 각종 기술자와 철 등의 선진문물을 전해주었고 일본은 그 대가로 물자와 군사를 지원했다. 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되었다.

이러한 교류는 정부와 정부 간에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때로는 개인과 개인 간에도 교류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교류의 규모가 아니었다. 이 책에서 알 수 있듯이, 그보다 규모가 작은 교류 또는 개인 간 교류도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고대 동아시아의 교류 방식 중 특히 한반도에서 일본에 건너간 도래인이 일본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한다. 한반도의 도래인은 일본에 농경 문화, 철기 제조법, 도자기 제조법, 한자 문화, 그리고 각종 기술과 지식을 전해 주었다. 일본은 그 대가로 군사, 식량, 각종 문물을 지원했다. 이들의 교류는 혼란의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는 힘이 되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 하나의 나라가 멸망하고 또 새로 세워졌다. 결국 거대한 역사의 흐름 그 밑에는 민간 교류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저자인 다나카 후미오는 그런 교류사를 통해 고대 동아시아 교류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시야를 제공하려 한다. 나아가, 현대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한일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파악해야 하는지 논한다.

목 차

머리말.....	6
서장. 열도 고대사와 아시아사를 연결하는 시각	
1. 동아시아 세계론과 국제적 계기론.....	11
2. 일국사(一國史)와 민족사(民族史)를 뛰어넘어.....	15
제1장. 아시아사 속의 왜국사(倭國史)	
1. 사람·문물·문화의 도래.....	20
2. 뒤섞이는 ‘안’과 ‘밖’.....	24
3. 대수장(大首長)반란의 국제적인 환경.....	28
제2장. 도래인의 ‘신체’와 기술·능력·문화	
1. 기술자의 도래와 도래계 씨족.....	35
2. 한자문화와 도래인의 정치적 ‘신체’.....	40
3. 왕진이(王辰爾)의 전략.....	44
참고문헌 및 사이트.....	50
일본어 초록.....	51

머리말

-아시아의 시대?

20세기 말, 사람들은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 희망을 품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말은 유감스럽게도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확신시켜 주지는 못했다. 아시아의 경제성장이 주목받는 한편 일본과 아시아의 정치적·경제적인 ‘충돌’도 뉴스에서 요란하게 다뤄지고 있다. 우리는 각국의 정치체제, 경제체제, 안전보장문제, 세계화된 시장경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근대 특유의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반일 데모, 야스쿠니 신사 문제, 교과서 문제 등 역사문제와 국가주의 문제가 뒤엎힌 작금의 사태 역시 근대 특유의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을까?

국가주의와 역사문제가 뒤엎힌 아시아 근대사의 문제라고 하면 아시아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일본과 유럽의 제국주의·식민지 지배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근대 특유의 구조’라고 언급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근대사에 있어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다. 아시아 각국과의 역사문제·국민감정 갈등은 근대사의 문제영역, 예를 들어 전쟁 책임 문제 등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니러니하게도 역사문제가 근대사에 집중되면 될수록 ‘근대’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 근대 특유의 구조를 깨닫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일본사 속의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최근 한국과 중국이 겪고 있는 근대사 이전의 역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구려에 대한 문제다.

고구려는 현재의 중국 동북지방과 북한 국경 부근에서 부흥했던 고대왕국이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중국과 북한의 광대한 영역에 걸쳐 영토를 확장시켰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130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중국 간에 ‘고구려가 어느 나라의 역사에 속하는가’하는 논쟁이 발생해 정치문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고대 고구려인이 듣는다면 필시 황당할 테지만 일본에 있어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류큐(琉球)왕국의 역사가 왜 일본의 역사인가?’¹⁾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상상하면 이 문제의 깊이와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와 류큐의 역사를 학문적으로 깊이 추구해도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단, 그러한 논의가 일어나게 된 상황을 근대의 구조를 통해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근대 왕국시대에서 왕권 지배의 정통성은 신과 신화를 통해 증명되었다. 말하자면 ‘왕권신수(王權神授)’의 세계다. 그러나 신과 신화가 힘을 잃어버린 근대에 왕으로부터 주권을 빼앗은 국민들은, 일정한 범위의 국민에게만 주어진 주권의 정통성을 신수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 했다. 왜 ‘우리들’은 같은 ‘국민’으로 존재하며 주권을 갖는 것인가? 그리하여 근대에 국민사(國民史)가 등장하게 된다. 우리 국민이 역사적인 운명을 함께 해 온 국가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유하는 역사’가 ‘확신’시켜 준다. 근대에서 국민과 민족은 역사적 운명을 바탕으로 일정 범위에 묶여 논의되었다. 국민과 민족의 기반이 된 역사 역시 영토나 주권처럼 한정된 범위의 개념이 되어 배타적으로 점유 가능한 대상이 되어 버렸다.

-일본사의 공간

근대 국가와 역사가 위와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일본사 교과서에서 세계사가, 세계사에서 일본사가 압도적으로 결여된 것도 당연하다. 이들 교과서는 국민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기에 ‘일본국민’이 오래 전부터 현대의 국경과 겹치는 어느 일정하고 자기 완결된 역사적 공간을 운명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그렇기에 세계 역사 속에서 일본사는 떼어놓을 수 있는 하나의 단위처럼 취급받는다. 물론 이는 일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연구 현장에서는 일정하고 자기 완결된 역사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예컨대 마치 인상과 화가의 그림처럼, 멀리서 보면 사물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다고 생각하기 쉽다. 일본사를 광역사의 시점에서 보면 일본열도 사람들과 그 사회의 역사가 외부의 다양한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 우리는 각자, 또는

1) 역주, 류큐(琉球) 왕국 : 1429년부터 450년 간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존재했던 왕국. 특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1879년 일본에 흡수되었다.

상황에 따라 ‘우리’와 ‘남’의 범위를 달리 인식한다. 역사 연구도 마찬가지로 분석대상과 상황을 바꿀 때마다 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역사적 공간도 바뀌어 버린다. 역사 속에는 ‘안’과 ‘밖’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심지어 그들은 서로 뒤섞이거나 겹쳐져 있다. 그들의 윤곽은 점점 애매해져서 ‘일본사’라는 완결된 역사적 공간은 결국 파악하기 힘든 존재가 되어 버린다.

특히 내 전공인 고대사 연구 분야에서는 국가형성사가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질 만큼 국가와 국경조차 명확하지 않다. 고구려가 존재했던 시대, 열도에는 일본이라 불리는 국가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사’가 기원전부터 현대와 유사한 국경을 가진 하나의 단위로서 존재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고대사의 객관적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이 아니다. 근대 국민 국가의 관점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틀이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단, 그 사실을 의식한 ‘일본고대사’와 의식하지 않은 ‘일본고대사’는 역사상(像)이나 현대를 보는 시선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일본고대사와 아시아사

위와 같이 말하면 일본고대사는 실제 ‘일국사(一國史)’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 나올 지도 모른다. 동아시아와의 관계를 빼고서 일본고대사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적인 상식이다. 일본사 교과서의 경우, 특히 야요이시대(弥生時代)²⁾에서 울릉국가가 등장하기까지의 역사는 분량이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벼농사의 전래, 한위노국왕인(漢委奴國王印)³⁾, 히미코(卑弥呼)와 위나라의 관계⁴⁾, 칠지도와 고구려 광개토대왕 비문, 왜의 다섯 왕과 송나라의 관계⁵⁾, 도래인, 견수사(遣隋使)·견당사(遣唐使)⁶⁾, 백촌강(白村江) 전투⁷⁾

-
- 2) 역주, 야요이시대(弥生時代) : 기원전 200년~기원후 300년에 걸친 시대. 수도경작(水稻耕作), 석기와 금속기의 병행 사용, 토기 등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힌다.
- 3) 역주, 한위노국왕인(漢委奴國王印) : 후쿠오카 시카노시마(志賀島)에서 발견된 금인(金印)으로, 시카노시마의 금인(志賀島の金印)이라고도 한다. 중국 한나라 광무제가 신하인 왜나라 국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역주, 히미코(卑弥呼) : 야요이시대 왜의 여왕으로 추대되어 중국 위(魏)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 5) 역주, 왜의 다섯 왕 : 중국 송서(宋書)에 등장하는 왜나라의 다섯 왕, 즉 찬(讚)·진(珍)·제(濟)·흥(興)·무(武). 일본에서는 讚=닌토쿠(仁德), 珍=한제이(反正), 濟=인교(允恭), 興=안코(安康), 武=유라쿠(雄略)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나 이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다.
- 6) 역주, 견수사·견당사(遣隋使·遣唐使) : 7세기 아스카시대에서 9세기 헤이안시대에 걸쳐 일본이 중국 수, 당나라에 보낸 사절. 중국의 선진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 7) 역주, 백촌강 전투 : 663년, 백제 멸망 후 백제유민-왜, 신라-당나라 연합군이 금강 하류에서 싸운 전투.

등 열도고대사에 영향을 미친 동아시아사 관련 항목이 잇따라 등장한다.

그러나 교과서 전체로 보면, 이처럼 동아시아사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고대사조차 일국사(一國史)를 뛰어넘는 개념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일본사 교과서 기술의 큰 특징을 두 가지로 추려서 설명하려 한다.

첫 번째, 일본고대사 속의 동아시아사는 ‘일본사’에 어울리게끔 ‘왜(倭)=일본’을 ‘안’으로 하고 관련 국가들을 ‘밖’으로 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왜와 일본을 하나로 묶어 마치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단선적으로 성장하는 인물처럼 명확한 단위로 취급한다. ‘안’인 ‘왜=일본’이 부동(不動)적인 고유의 단위라는 사실을 ‘밖’과의 관계사를 통해 살펴보면서 깊이 인식시킨다.

두 번째, ‘왜=일본’과 동아시아 교류사를 ‘국풍문화(國風文化)⁸⁾가 등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율령국가시대의 국제교류는 견당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견당사 파견이 끝나자 일부 경제적 교류를 제외하고 동아시아에서 선진문화를 흡수하는 시대는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그 이후 국풍문화가 등장했다. 즉 열도사와 동아시아사의 접점은 세련된 일본문화가 등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또는 국풍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

이처럼, 일본고대사 속의 아시아사는 지구에 운명적으로 파종되어 있던 ‘일본’이라는 고유종을 발아시키기 위한 비료처럼 ‘일본’에 흡수된다. 그러나 연구자는 국민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역사교과서의 숙명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에는 역사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객관성’이 담보되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역사교과서는 역사연구자의 손을 거쳐 태어난다.

역사연구자들은 일본사·일본문화사에 고유성이 있으며 그를 타국과의 관계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연구자들이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현대적 과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이 전투에서 백제유민-왜의 연합군이 패배하여 백제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백촌강전투, 백강구전투, 백강구싸움, 백강전투라고도 한다.

8) 역주, 국풍문화(國風文化) : 10~11세기 경, 견당사가 폐지되고 중국에서 도입된 문화와 일본 문화가 융합되어 일본 문화 고유의 특성이 형성된 시기.

생각이 확산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그 배경이 대부분 망각된 채로 연구 방식만이 일부 연구에 끈질기게 남아 있는 상태다. 그리하여 교과서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다양한 저서를 통해서도 ‘국민사’적 역사상(像)은 ‘국민’에게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쌍방 교류가 한 국가의 역사만을 위해 작용했을 리는 없다. 또한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교류가 항상 국가 단위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국가 단위로 보면 역사 실태의 줄기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서로 뿌리가 얽혀 있어 분리할 수 없는 상태다. 심지어 나뭇가지마저 공유하는 여러 개의 줄기가 존재할 지도 모른다. 이 문제를 연구자 자신이 깊이 인식하게 된 것은 세계정세가 급변하는 1980년대였다. 연구 현장에서도 스스로가 만들어낸 교과서적인 이해 방식을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학계의 새로운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국민사적 역사관에서는 주요 테마로 취급받지 못했던 열도고대사를 다룬다. 또한 국경을 뛰어넘어 깊이 뒤얽혔던 아시아의 네트워크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정치의 무대 뒤에서 전개된 지역 간 국제교류나 국가·민족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교류에 시선을 두고 싶다. 그 교류는 결코, 역사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사소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모두 역사를 움직이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만약 우리들이 고대사회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거기에서 ‘우리’, ‘우리들’의 범위는 이미 ‘국민’이 아닐 것이다. 나는 아시아의 국가주의에 당혹감을 느끼며 ‘일본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적절한 때라고 생각한다. 현대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역동적이었던 고대 열도에서 역사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중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 싶다.



서장. 열도 고대사와 아시아사를 연결하는 시각

1. 동아시아 세계론과 국제적 계기론

-역사학자의 '눈'

역사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문이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무한히 많은 사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분석할 것인가는 분석 대상의 중요성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분석하려는 연구자의 '눈'에 따라 선택된다. 또한 사회가 어떤 연구를 중요하다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연구자의 분석력이 높기

때문만은 아니다. 거기에 존재하는 관점이 연구자 개인을 뛰어넘어 넓게는 학계에, 또는 학문을 초월한 일정 범위의 사회에 공유되기 때문이다. 그 관점은 연구 이전부터 명확하게 인식되어 널리 공유되기도 하고 연구를 통해 자각하기까지 무의식의 영역에 숨겨진 채 공유되기도 한다.

역사학도 마찬가지로, 학문의 전문 영역조차 초월하는 중요한 연구나 영향력 있는 연구는 그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회의 문제와 밀착되어 있다. 그렇기에 지금은 일본 밖까지 널리 알려진 ‘일본고대사는 동아시아사를 빼고는 논할 수 없다’는 상식의 배경에도 현실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의식화되거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고대사 내의 동아시아사 연구 방식이 아시아 침략이나 영토 확장 정책과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일제와 그에 동조한 전쟁 전 역사 연구 방식을 엄격하게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했던 전쟁 후의 역사학에도 당시의 상황이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른 바 ‘전후역사학’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일본고대사 속 동아시아사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지금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론이 있다. 중국사학자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의 ‘동아시아 세계론’과 일본사학자 이시모다 쇼(石母田正)의 ‘국제적 계기론’이다. 이 책에서는 고대 열도의 다양한 지역과 사회가 아시아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두 가지 이론을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아시아사와 일본고대사를 둘러싼 중요한 관점 및 과제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아시아 세계론

니시지마 사다오의 동아시아 세계론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중국 한(漢)나라 이후 국제 정치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된 중국 왕조를 중심으로 한국·일본·베트남까지 포함하는 ‘동아시아 세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중요한 뼈대는 책봉체제(冊封體制)라는 특수한 국제관계가 동아시아 세계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책봉이란 중국 주변국의 군장(君長)이 중국 왕조로부터 왕이나 제후 등의 지위를 받아 신하가 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야마타이국(邪馬台國)의 여왕 히미코가 중국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황제로부터 친위왜왕

(親魏倭王)으로 임명된 일 등이 있다. 중국 왕조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군신관계에서는 한자가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 때문에 책봉을 받은 주변국에 한자가 전해졌으며 한자를 매개로 한 유교·불교·율령법 등 중국 문화·사상·제도도 전해졌다.

이처럼 니시지마가 말하는 역사적 세계로서의 동아시아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책봉 체제와 한자문화권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니시지마에 의하면 동아시아 세계는 10세기 초 당(唐)이 멸망하고 중국의 정치적 힘이 쇠퇴한 뒤에도 대규모 교역관계를 통해 근대 이전까지 경제적·문화적으로 존속되었다. 확실히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에는 ‘한자문화’라 불리는 문화가 존재한다.

최근 아시아의 경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급부상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있어서 한자문화를 공통 가치관으로 주장하는 학자를 자주 보게 된다. 그 대부분은 니시지마의 학설을 의식하지 않거나 모르는 것 같지만 니시지마의 학설은 틀림 없이 그런 논의에 역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계기론

이시모다 쇼의 국제적 계기론이란 고대 열도사회의 국내 정치와 국제 관계가 매우 밀접한 관계라 보고 그를 통해 일본 고대 국가 형성사를 논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문화인류학의 ‘미개사회론’ 중에서도 수장제(首長制)론을 적극적으로 선택·활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마타이국의 히미코는 국내에서는 샤먼⁹⁾이라는 ‘미개사회’의 왕이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국제 정세를 기민하게 포착하는 ‘선진적인’ 왕이기도 했다. 이러한 양면성은 수장제 구조를 통해 설명된다. 이시모다에 의하면 이는 공동체의 ‘공동성’을 수장이 대표하는 구조와 관계가 있다. 왜왕 히미코는 왜의 대표이자 나라 ‘안’과 ‘밖’의 경계에 존재하는 수장이다. 즉 히미코는 ‘안’에 해당하는 후진적인 왜의 대표이자 ‘밖’의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와 교류함으로써 선진적인 면을 갖게 된 것이다. 게다가 공동체를 대표하는 왕=수장 등 지배층은 대외 교류를 독점했기 때문에 점점 더 선진화 되어 갔다. 한편 국제교류에서 소외된 인민은 그에 뒤처지게 되어 계층적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었다.

9) 역주, 샤먼 : shaman. 주술사. 고대에는 정치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다.

우리 현대인의 시점에서 이 이론은 불평등한 세계화가 만들어낸 양극화 사회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어찌되었든 위와 같은 수장제 구조를 통해 고대 열도 사회를 파악하면 고대 국가의 성립도 국내 정치와 국제 관계의 연계 구조 안에서 설명해야 한다. 그를 전제로 이시모다는 6세기 말~8세기 전반 동아시아에 ‘전쟁과 내란의 주기’가 공유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일본 고대 국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설명했다.

이시모다의 이론은 대외 관계가 한 나라의 정치를 움직이는 계기가 되는 한편 그 국가의 정치가 대외 관계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는 각국의 내정과 대외 관계의 연계 속에 존재했다. 예를 들어, 7세기 동아시아에서 국제 관계를 규정한 것은 주로 한반도 문제였으며 중국 수(隋) 왕조의 멸망도 그 연장 선상에 존재했다. 이시모다의 이론은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세계’를 설명한 니시지마의 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일국사(一國史)와 동아시아사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두 이론의 공통점

이 두 이론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 니시지마는 각 국가의 다양하고 주체적인 움직임이나 힘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 관계가 책봉제도의 배경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한 국제 관계가 책봉제도를 통해 자각적 또는 무자각적으로 표현된 곳에서 ‘동아시아 세계’를 발견한 것이다.

한편 이시모다도 한무제(漢武帝)¹⁰⁾가 한반도에 낙랑군(樂浪郡)¹¹⁾ 등 사군(四郡)을 설치한 것이 동아시아에 하나의 ‘세계 제국적인 국제 질서’를 부여했다고 하여 그 중대성을 인식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 흡수된 한자문화가 고대 일본의 국가 기구를 운용하는 수단이 됨과 동시에 동아시아 각국의 다면적인 교류를 가능케 했다 하여 그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다.

따라서 이 두 이론을 이 책의 테마를 통해 재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이 약간 억지스럽게나마 이해할 수 있다. ‘고대 동아시아는 각 국가와 민족이 중국을 중심

10) 한무제(漢武帝) : 기원전 156년~기원전 87년. 중국 전한(前漢)의 7대 황제로 중앙집권화를 이룩했다.

11) 낙랑군(樂浪郡) : 중국의 한무제(漢武帝)가 이민족을 지배하기 위해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 지역에 설치한 군(郡).

으로 국제 정치 질서를 만들고 중국에서 전래된 문화·사상·제도를 공유한다. 그러면서도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내정 및 대외 관계로 뒤얽힌 국제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그를 한자문화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하나의 역사적 세계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이론은 1960년대 초에 기초 부분이 드러나고 1970년대 초에 발전적으로 제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니시지마, 이시모다 두 역사학자의 관점은 일본 전근대사와 세계사의 연계를 분리된 각 분야의 단순한 집합·뒤섞임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도 공통된다. 이들 이론은 내정과 외교를 각각 다르게 고찰하거나 양국의 문화교류사를 통해 문화 전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일견 개별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다양한 역사적 사상(事象)이 동아시아라는 역사 공간 안에서 상호 연계하며 다양한 법칙을 갖고 움직였다는 것을 총체적·전체적·통일적인 역사사상 속에서 제시하려 했다는 점이 참신했다. 아니, 자국사와 세계사를 각각 다른 역사로 표현하는 역사교과서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이들 이론은 지금도 '신선함'을 느끼게 해 준다.

동아시아 세계론과 국제적 계기론은 동아시아사라는 광역적 관점에서 많은 사건을 설명하는 방법을 일본사·한국사·중국사 연구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에 따라 일본고대사 분야에서도 '동아시아 속의 일본고대사', '동아시아에서 본 일본고대사'라는 관점을 가진 우수한 연구가 잇따라 이루어졌다.

2. 일국사(一國史)와 민족사(民族史)를 뛰어넘어

-역사와 국경

그런데 최근 이 두 이론에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주관적이고 역사적 틀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연구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그것은 일국사(一國史)를 초월했다는 평가를 받은 두 이론이 오히려 일본 일국사의 틀을 '암묵의 전제'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그런 '눈'으로 동아시아 세계론을 읽으면 니시지마의 이론에는 확실히 일본사를 세계사적 견지·문맥에서 파악하려는 자세가 미미하게 보인다. 거기에는 현대까지 이어지는 일본인의 역사·문화의 고유성·특수성을 동아시아 세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의도도 명시되어 있다. 그 고유성이란 대륙문화의 '리(理)'에

대비되는 ‘정(情)’이라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학적으로 검증된 개념이나 결론이라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뜬금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무래도 니시지마에게 있어서 일본 고유의 역사와 문화란 그 존재 자체가 명확한 개념이었던 모양이다. 게다가 잘 생각해 보면, 애당초 니시지마가 말하는 범위 안에서 동아시아 세계를 자기완결적인 세계라 보는 관점 자체가 중국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중국사에서는 북쪽이나 서쪽 나라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국제적 계기론은 어떨까? 이시모다의 이론에서 수장계층이란 최대 최고의 수장인 천황(天皇)만이 아니었다. 열도 각 지역에는 실로 많은 지방수장이 존재했다. 일반적으로 호족(豪族)이라 칭해진 사람들이다. 이시모다가 국가성립사에 있어서 특히 중시한 점은 지방수장의 지배실태와 그로 인한 모순이었다. 그런데 수장의 대외적 기능을 중시한 국제적 계기론이 언급한 국제 관계는 어째서인지 왜왕(천황)에 한정되어 있다. 다른 지방수장의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거의 논하지 않는다. 요컨대 이시모다의 국가성립사에 있어서 국제적 계기론은 역동적인 국제사회, 마치 국경으로 선을 그은 것처럼 동떨어진 지방의 동향, 양측의 접점에 선 최고 수장인 천황을 주축으로 한 움직임이라는 삼자 연계 속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열도 역사의 진행 및 계층대립의 소산인 국가의 성립’이 국제적 계기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보는 이시모다의 이론에서도 ‘일본열도의 역사’는 명확한 존재로 취급된 것이다.

-국민적 역사학 운동에서 동아시아로

위에서 지적한 두 이론의 문제점과 한계는 이들을 낳은 1950년대~1970년대 일본 사회의 과제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이를 단순한 연구상의 ‘문제점과 한계’라 치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점과 한계의 배경에 있는 시대야말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즉 1950년대 전후의 ‘전후역사학’은, 패전 직후의 계몽주의에 질렸으며 동아시아 식민지 독립운동의 성공에 자극받아 ‘국민적 역사학’을 내건 민족주의적 논조로 가득 차 있었다. 단 여기서 민족이나 국민은 국가의 지배층과는 명확히 구분되었으므로 일제의 전쟁주도자들까지 옹호하는 현재의 민족주의적인, 혹은 국가

주의적인 논조와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지금까지 지배층이 부인·봉인하고 있던 일본 민족·국민 문화를 발굴하여 보호함으로써 국가지배층의 전쟁 전 민족 억압을 규탄하고 전후 일본에 어울리는 새로운 국민의 자긍심, 민족의 자긍심을 찾으려는 운동이었다. 이시모다는 이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방법론, 방향성, 조직적 문제 등의 벽에 부딪쳐 1950년대 후반에 완전히 시들어버렸다. 이러한 정체기 속에서 ‘국민적 역사학’ 운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역사학연구회는 1963년도 종합부회의 테마로 ‘동아시아 역사상(像)의 검토’를 내걸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동아시아 역시 1950년대의 논의를 계승하여 제기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대회 보고자의 한 사람이었던 일본근대사학자 도야마 시게키(遠山茂樹)는 이 테마가 1950년대 전반의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계승했다고 판단했으며 세계사는 각 민족의 주체적인 역사의 구조적 복합체라고 설명했다(『역사학연구』 301). 사실 이러한 연구관점의 필요성은 1950년대 전반부터 독일사학자인 우에하라 센로쿠(上原專録)가 주장한 바 있다. 우에하라는 ‘일본의 민족 생활’을 독립적인 것이 아닌 인류사 전체의 전개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역사의식의 주체성 확립과 세계사상(像)의 자율적 형성’이라는 과제를 탐구해 니시지마나 이시모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동아시아 논의에는 처음부터 ‘국민적 역사학’의 시각이 강하게 투영되었던 것이다.

이런 논의들이 1962년, 니시지마의 ‘6~8세기 동아시아’나 이시모다의 ‘일본 고대의 국제의식에 대하여’라는 저명한 논문으로 발표되고 학계에 널리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당시의 사회정세와 관련된 현실적인 배경이 작용했다. 이시모다가 ‘근대사학사의 필요에 대하여’에서 언급했듯이, 1959년에 시작된 안보투쟁¹²⁾이 ‘일본인의 시선을 마지못해 외부에 돌리기만 할 게 아니라 외부, 즉 중국·한국·소련의 입장을 참작하여 일본의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사실을 통해 가르쳤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기본조약 성립을 위한 움직임이나 미국 포드·아시아 재단의 중국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 등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그에 가담하려는 일본지배층의 의도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어 문제시되었다. 이 시기에

12) 안보투쟁 :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일본에서 미국 주도의 냉전에 가담하는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에 반대하여 일어난 시민주도의 대규모 평화 운동.

일어난 베트남 전쟁은 니시지마의 ‘동아시아 세계’에 베트남을 포함시키는 현실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일국사(一國史)에 국한된 ‘국민적 역사학’ 논의에 한계를 느낀 역사학자의 ‘눈’은, 1960년대 일본사회를 둘러싼 아시아의 현실 및 과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사를 포함한 ‘세계사상(像)’으로서의 동아시아사의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역사학은 인민의 국제적 연계를 지지하며 지배층의 연계에는 철저히 저항해야 한다는 명확한 사상이 있었다. 그것은 ‘국민적 역사학’ 운동 이후 만들어진 정신이었다. 즉 현실을 외면해야 학문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가담하고 제국주의적인 ‘눈’을 갖게 된 전쟁 전의 역사연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인 것이다.

-전후역사학의 전환

지금까지 논한 1950년대 이후의 전후역사학이 본격적인 전환기를 맞이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다. 이 무렵, 급격한 경제성장과 대중화를 통해 동질화 된 ‘일본국민’에 대해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내건 일본민족주의 이론은 우파의 주장과 동일시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91년 소련 붕괴 등 세계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학계에서는 국민국가론에 의해 ‘국민’의 허구성이 드러나 민족의 주관성, 가소성(可塑性), 정치성도 명확해졌다. 기존의 ‘국민적 역사학’은 근거도 미래도 잃고 말았다.

1990년대가 되자 앞서 논한 동아시아 세계론과 국제적 계기론의 문제점 및 한계도 잇따라 발견되었다. 국민사의 허구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국민국가론의 ‘눈’을 통해 보면 쉽게 지적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단독주의(unilateralism)¹³⁾와 국가주의에 동조하는 이론이라는 낙인을 찍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 ‘국민적 역사학’ 운동을 통해 야기된 민족의 자각, 민족의 주체성, 민족의 자긍심 같은 말들은 현재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과 똑같이 취급될 수 없다. 지금과는 달리 일본의 역사적 지배층은 자랑스러운 ‘일본민족’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여기서 말하

13) 역주, 단독주의 : unilateralism. 일본어로는 일국주의(一國主義). 상대의 합의를 얻지 않고 자신의 선호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것.

는 ‘민족’은 국가와 지배층에 저항하는 주체로서 전략적·창조적인 존재로 이미지가 화되어 있었다. 때문에 국제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배-예속 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제적 연계를 시도한 국가와 그 지배층에 저항하고자 세계사 창조의 주체가 될 세계 여러 민족의 연계를 모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국제사회를 다중적으로 보는 이 관점은 고대 동아시아 각 지역의 교류·연계의 다양성·다원성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이들 이론이 인민의 역사를 일국사(一國史)에 포함시키는 국민사·민족사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지배층의 국제적 연계에 내포된 정치적 의도를 국내 인민지배와의 관계를 통해 폭로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경을 초월한 교류사 이론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배층의 정치적 영역에 집중되기 쉬운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에서 현대사회의 모순에 저항하는 역사적 주체를 찾으려 했으므로 여기에 제기된 국제사회의 역사적 틀과 구조는 제대로 된 비판을 받지 못했다. 이는 식민지 독립운동이 ‘종주국’의 시스템 및 경계를 답습한 채 발전할 수밖에 없는 점과 유사한 문제다. 동아시아 세계론과 국제적 계기론이 ‘민족 역사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연구자들로부터 각 민족의 역사적 주체를 경시한다는 예상치 못한 비판을 받은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동아시아 세계론과 국제적 계기론은 국제관계사를 전체적·객관적·구조적으로 날카롭게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이론에 내포된 민족사·국민사는 너무나 주관적이며 무방비하여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관점을 바꾸다

21세기 현재, 우리는 변함없이 국제화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 IT혁명에 의해 1970년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균등하게 진행된 세계화는 아시아에 사회 격차 문제, 국가주의의 충돌 등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다. 최근 우리는 이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거리를 둘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 동아시아사 사상은 세계화를 어쩔 도리 없다며 포기해버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내부에 틀어박히지도 않았다. 현 상황과는 다른 국제 연계 방식을 모색하려 했다.

예전처럼 여러 민족 및 국민의 고유한 역사를 내세우면서 이러한 현상을 세계

사 주체의 연계로 제시하려 하면 학문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동아시아사 연구가 현대의 국제적 연계를 다층적으로 관찰한 것처럼 고대 국제교류사를 좀 더 다층적으로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역사상의 세계를 민족사나 일국사의 상호 관계사로서가 아닌 국경을 초월한 다층적·다원적인 연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리즘이나 국가주의에 물든 이론과는 다른 차원의 역사인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동아시아 세계론과 국제적 계기론에 결여된 부분, 즉 고대 열도사회와 국제사회를 다양하게 엮은 다층적·다원적 네트워크를 통해 고대 열도와 국제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파악해 보려 한다. 이는 1950년대~1970년대의 사회 현실을 바탕으로 제기된 동아시아, 한자문화, 국제적 계기에 대한 문제에서 현대사회의 과제와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제1장. 아시아사 속의 왜국사(倭國史)

1. 사람·문물·문화의 도래

-왜인(倭人)사회와 도래 문물·문화

열도의 왜인(倭人)사회는 ‘왜인사회’라고 한 마디로 단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로웠다. 그러면서도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열도 바깥의 자원·기술·지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국제교류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였다.

예를 들어 농경사회의 기반이 된 철과 철기의 경우 재료와 가공기술의 대부분을 적어도 5세기까지 한반도에 의존하고 있었다. 만약 철기 유입이 없었다면 열도의 ‘고분시대’¹⁴⁾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그러므로 열도의 여러 공동체를 대표하는 수장들은 공동체 유지와 자신의 권위를 위해 열도 바깥 지역, 그 중에서도 한반도·중국 대륙 지역과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공동체 사람들은 이들 수장이 공동체에 필요한 자원과 문화를 ‘밖’에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 한 명의 수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면 그를 가능케 하는 다른 공동체와 연계하거나 사회 조직을 재

14) 역주, 고분시대(古墳時代) : 3세기~8세기 초까지의 일본의 시대 구분. 당시 지배자들이 거대한 무덤, 즉 고분을 축조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정비했다. 그들은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주관적으로 ‘왜인’이라 불렀으나 범위와 실태는 애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호칭을 받아들여려는 것처럼 ‘왜인’으로서 사회적 조직을 만들어 나갔다. 한반도와 중국 대륙으로부터 유입되는 문물과 문화 및 유입 경로는 이 당시 왜인사회의 역사적 전개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이러한 물자와 문화를 여기에서는 도래 문물·문화라고 부르겠다.

이 도래 문물·문화를 열도에 가져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이었다. 외교 사절에 의해 평화적으로 유입된 경우도 있고 전쟁으로 인해 강제로 획득된 경우도 있었다. 분쟁, 기근, 역병 등으로부터 도피한 사람들에 의해 유입되기도 했다.

또한 유입된 문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도래 문물, 문화와의 관계도 달라졌다. 형태가 있는 문물은 배에 실을 수 있지만 형태가 없는 기술이나 지식은 그것을 담은 상자가 없으면 이동할 수 없었다. 기술자나 지식인들은 자신의 신체를 상자로 삼았다. 도래 문물·문화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왜인사회에서 최신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술자나 정치·사상·문화에 능통한 도래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왜국(倭國)시대에, 도래인 중에서도 기술자의 도래가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가야와 철

최근의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열도 바깥에서 벼농사·금속기 문화가 도입된 야요이 초창기 이후 다시금 도래인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5세기 초엽 전후다. 그들 중 대다수는 신라와 백제 사이에 존재했던 한반도 남부 국가 가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현재의 낙동강 하류에 해당하는 가야 남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눈에 띈다.

왜인에게 있어서 가야 남부 지역은 야요이시대 이래 철의 공급지였기 때문에 양국의 교류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중국 역사서 『위지(魏志)』 왜인전(倭人傳)은 중국에서 야마타이국까지 가는 3세기경의 경로에 대해 쓰고 있다. 이 경로는 대방군(帶方郡)¹⁵⁾을 출발해 한반도 서해안을 거쳐 금관가야(金官伽倻)¹⁶⁾로 가, 바다를 건너 쓰시마(對馬)에 이르는 것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쓰

15) 역주, 대방군(帶方郡) : 중국 한나라가 설치한 군현. 지금의 한강 이북 경기도 지방과 자비령(慈悲嶺) 이남의 황해도 지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시마로 향하는 기점이 된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 지역, 즉 현재의 경상남도 김해에 존재했던 국가로 야요이시대부터 왜와 교류했음이 각종 유물·유적을 통해 밝혀졌다.

『위지 한전(韓傳)』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국가(변한·진한)에서 철을 만들어, 한(韓)·예(濊)·왜는 모두 이를 얻으러 간다. 여러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철로 값을 지불하며 이는 중국의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

이는 3세기 왜인이 철을 얻기 위해 한반도 남부까지 갔다는 것을 알려주며, 당시 철은 중국 돈(錢)에 필적할 정도의 화폐적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한편, 3~4세기 무렵 왜인의 국제교류거점은 주로 북부 규슈 지방이었다. 하카타 만(博多灣)¹⁷⁾에 접한 후쿠오카시의 니시진(西新)마을에서는 3세기~4세기경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는 북부 규슈만이 아닌 긴키(近畿)·산인(山陰)¹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한반도 도래인과 함께 살았던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철의 소재로 사용되는 판 형태 철부(鐵斧)¹⁹⁾가 출토되어 이곳에서 살던 왜인들은 도래인으로부터 철 등을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4세기 이전 일본 열도와 한반도 간 사람들의 이동은 주로 북부 규슈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농사를 짓고 전쟁을 하던 왜인에게 철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였기에 이를 공급하는 한반도 남부 지역과의 교류는 왜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5세기 초엽 전후에 증가한 도래인 중 철로 상징되는 가야 남부 지역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그 무렵 왜가 가야와 확실히 교류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본의 5세기 전엽 전후의 고분에서는 한반도 남부에서 철에 공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유물이 다수 발견되었다.

16) 역주, 금관가야(金官伽倻) : 6가야 중 하나. 현재의 경상남도 김해에 위치했으며 일본에서는 구야한국(狗邪韓國)이라 불렀다.

17) 역주, 하카타 만(博多灣) : 현재의 규슈 후쿠오카현 북서부에 있는 항구도시로 역사가 깊다.

18) 역주, 긴키(近畿)·산인(山陰) : 긴키는 일본 혼슈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까지 이르는 지역. 산인은 일본 혼슈 돗토리 현과 시마네 현을 이르는 지방. 둘 다 규슈와는 거리가 있다.

19) 역주, 판 형태 철부(板狀鐵斧) : 납작한 판 형태의 철부. 철부란 철제 공구이자 무기로 철기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다.



-기술혁신의 시대

한편, 5세기 초엽 전후 도래인의 증가는 왜와 가야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음을 뜻한다.

5세기 초엽 전후 양국 교류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반도 내 왜인의 흔적은 여전히 가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열도 내 도래인의 흔적은 단순히 숫자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동지역·거주지역이 북부 규슈에서 긴키·기비(吉備)·도고쿠(東国)²⁰까지 확대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 시기 도래인이 유입한 기술과

문화는 왜에 ‘기술혁신의 시대’를 열었다. 예를 들어 군사력 및 생산력과 직결되는 철기 생산기술이 쇄신되어 스에키(須惠器)²¹라 불리는 청회색을 띤 경질 토기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문화적 변화도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한반도 매장 풍습의 영향을 받은 고분이 등장하거나 기마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급변하고 있던 한반도 정세가 반영된 것이다. 4세기 후반 이후 한반도 북부의 고구려는 남부를 공격해 들어왔다. 한반도 서쪽에서는 백제가 고구려와 격렬하게 충돌하였고 동쪽에서는 신라가 고구려와 연계하여 가야에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같은 적을 가진 백제와 가야가 동맹을 맺었고

20) 역주, 기비(吉備)·도고쿠(東国) : 기비는 오카야마 현에서 히로시마 현 동부에 이르는 지역 또는 당시 일본에 존재했던 고대국가인 기비국. 도고쿠는 주로 현재의 도쿄가 있는 관동지방을 가리킨다.

21) 역주, 스에키(須惠器) : 고분시대에서 헤이안시대(기원 후 794년~1192년)에 걸쳐 생산된 토기.

가야 남부에서 생산되는 철에 의존하고 있던 왜도 그 동맹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처럼, 4세기 후반 이후 왜인사회는 철의 공급처인 한반도 정세에 보다 직접적·정치적·군사적인 관여를 요구받았다. 왜에 동맹을 요구한 백제와 가야는 왜를 기술적·문화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왜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철과 선진 문물만이 아닌 기술자를 왜의 수장들에게 제공했다. 5세기 초엽 도래인들이 열도 각지에 확산된 것도 이러한 국제적 동맹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왜의 수장들은 국제 정세에 관여한 대가로 얻은 한반도의 인재·문물·문화를 이용하였고, 도래문화를 몸에 익히기도 하고 분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선진문물·문화를 유입한 자신의 실력과 선진성을 영토 내 사람들이나 다른 수장들에게 과시할 수 있었다. 또한 한반도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 긴키의 오키미(大王)²²⁾를 주축으로 정치적으로 결합하고 군사적 조직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도래 문물·문화·무기·무구로 구성된 고분과 부장품이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2. 뒤섞이는 ‘안’과 ‘밖’

-수장의 국제교류

5세기 초엽을 전후로 하여 왜인사회에 도래인·도래문화가 확산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왜 왕권의 핵심인 오키미를 비롯하여 왕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유력 수장들이었다.

오키미는 왜의 대외 관계를 주도하는 최고 지위의 수장이었다. 그러므로 왜의 지원을 필요로 하던 한반도 각국이 인재·문물을 주는 대가로 우호관계를 맺으려 한 것도 당연했다. 따라서 도래인·도래문화는 오키미와 가까운 곳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의 고분에서 도래문물이 출토되면 오키미가 무덤의 주인에게 하사한 것이라 해석되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키미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열도 수장들이 오키미를 거치지 않고 한반도에서 직접 또는

22) 오키미(大王) : 다이오라고도 읽는다. 아스카시대(기원 후 592년~710년) 이전 왜의 수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러 학설이 있으나, 대개 일본 정권의 천황이나 황족을 뜻하는 말로 풀이된다.

독자적으로 도래인·도래문화를 유입했음이 밝혀지고 있다.

예컨대 5세기 초엽 후반 열도에서 만들어진 스에키 토기는 가야 남부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일정 지역에 한정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 왜인 수장층이 독자적으로 가야 남부 지역과 관계를 맺어 그곳에서 스에키 토기 기술자를 데려왔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도래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진 초기 스에키 토기 가마는 당시 외교 담당 수장이 지배했던 지역에 존재했으리라 추측 또는 확인된다. 이들은 오키미의 외교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가야 남부 지역과 독자적인 관계를 맺어 기술자를 직접 불러들였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최근에는 마구(馬具)의 유통·생산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반도와 열도 간에 다윈적 교류가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거대한 전방후원분(前方後円墳)²³⁾이 등장하여 오키미의 힘이 비약적으로 강대해졌으리라 여겨지는 시대에조차 오키미는 국제교류를 독점하지 못했다. 왜 왕권을 따르던 지방 수장들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국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왜의 국제적인 ‘대외관계’는 최고 수장인 오키미가 맡고 각 지방 수장층의 ‘대외관계’는 왜의 국내에 한정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왜인들은 자기 지역의 수장이 ‘밖’과 교류하기를 바랐다. 이 때 수장이 대치하고 있던 ‘밖’의 세계란 열도 자체의 ‘밖’이 아니었다. 수장이 이끄는 공동체 ‘밖’에 펼쳐진 세계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각 지방 수장들에게 있어 열도 내 유력 수장과의 교류도, 오키미와의 교류도, 가야 남부 수장과의 교류도, ‘밖’과의 교류 즉 대외관계에 해당했다. 이는 모두 수장의 외교 기능의 일부인 수장 간 교류에 해당하는 문제였다.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외교 능력을 요구받았던 수장들은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유력 왜인 수장만이 아닌 가야의 수장과도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반도와 일본열도 간 교류는 그와 같이 진행되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국제교류

그렇다면 왜, 오키미나 유력 수장만이 도래인·문물·문화를 보유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국제교류가 가까운 지역과의 교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힘들

23) 전방후원분(前方後円墳) : 일본의 고분시대(4~6세기 경)에 성행했던 거대 무덤양식.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강조했다시피, 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펼쳐진 넓은 바다가 ‘교류의 바다’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거기에 존재하는 바닷길을 사람들이 손쉽게 왕복하는 골목길 같은 것이라 상상하면 바다와 대륙이 만들어낸 역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거친 파도를 넘나드는 배를 몰기 위해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경제력도 필요하다. 운이 좋아서 항해 준비를 마쳤다 하더라도 난파되거나 습격을 받아 배와 귀중한 인적·물적 재산을 한 순간에 잃을 수도 있었다. 그만큼 능력을 얻기 위해 왜인사회에는, 적어도 야요이시대부터 일정 규모의 연대나 조직이 필요해 졌다. 게다가 5세기 초엽 이후 국제사회는 도래인·문물의 대가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인적·군사적·조직적인 힘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 지역의 수장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 이에 따라 왜인 수장들은 왜왕을 중심으로 광역적·계층적·분업적인 조직을 발전시켜 국제정세에 대응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왜의 외교를 주도했던 오키미는 5세기 경 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왜인 수장층을 조직해 왜인을 동원했다. 또한 공동체의 유지 및 수장의 권위 유지에 필요한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각 수장에게 주었다. 이 조직에서 국제교류의 책임과 실무를 맡고, 실제로 무기·병사를 동원하여 국제분쟁에 관여한 수장들은 타 지방 수장보다 우위를 점했으며 국제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다. 한편 한반도도 외교를 주도하는 오키미와 왜 왕권의 외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 수장들에게 인재와 문물을 대량으로 제공해 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같은 수장이라 할지라도 도래인·도래문화를 각각 다르게 보유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상부상조하는 생산과 분업

실타래처럼 중층적·다원적으로 결합한 아시아사와 왜국사의 관계는 각각의 사회를 지탱하는 산업·분업 구조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

앞서 서술했듯이 왜인은 적어도 5세기까지 대부분의 철을 한반도에서 얻고 있었다. 왜인사회는 열도 바깥 사회의 생산 활동을 자신들의 생활의 토대로 삼아 형성된 것이다. 생산 형태 및 변화는 사회 형태와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대 왜국사는 왜인의 활동과 의지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는 물론 왜국사에만 한정된 특징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위지 왜인전』의 쓰시마나 이키국(一支国)²⁴⁾ 관련 기록에서는 3세기 철 교역에서 왜인이 화폐 대용품으로 쌀을 사용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확실히 당시 가야지역에는 쌀농사가 가능한 평야가 적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이하 『서기』라 한다)²⁵⁾는 6세기 가야 관련 기록을 통해 경작지를 두고 격렬한 전투가 반복되었다고 전한다. 경작지 문제는 가야의 약점 중 하나였을 것이다. 부족한 곡물자원 일부를 왜인과의 철 교역에 의존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왜인의 곡물생산에는 한반도에서 유입된 철이 높은 위력을 발휘했다. 가야와 왜는 서로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4세기 후반 이후 왜가 한반도로부터 인재·문물·문화를 들여오면서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은 이미 말했다. 그러나 이는 병사를 제공하면 동맹의 의무를 다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한반도 국가들은 왜를 단순한 용병의 공급처로 보지 않았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기』는 왜가 동맹국인 백제에 병사·군함·무기·무구·말·보리 및 쌀 등의 곡물·실·목면·베까지 다양한 물품을 제공했다고 전한다.

이 같은 곡물의 제공은 3세기 이전 철 교역의 방식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지 왜인전』의 양잠 기록, 히미코가 위에 베를 보낸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 왜인은 오래 전부터 국제교역의 화폐대용품으로 직조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무기·무구·말은 4세기 후반 이후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국가들이 왜에 전한 생산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다. 모로키후네(同船)²⁶⁾ 등의 기록을 봤을 때 군함 역시 열도의 풍부한 목재를 가공해 판자를 엮은 형태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판자를 가공할 때는 철과 철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들도 오키미가 독점 생산한 것은 아니다. 곡물과 직조물이 열도 각지에서 생산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말은 5세기경부터 도고쿠에서 풍부하게

24) 역주, 이키국(一支国) : 중국 역사서에 나오는 일본의 고대국가. 현재 북부 규슈의 이키노시마 부근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25) 역주, 일본서기(日本書紀) : 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정사(正史) 역사서.

26) 역주, 모로키후네(同船) :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배.

생산되고 있었다. 외양선은 서일본 각지에서 만들어져 한반도에 건너갔을 것이다. 무기·무구의 경우 5세기에는 중앙 왕권이 직접 파악·관리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6세기에는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생산·분업 활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지방수장도 국제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재화를 손에 넣었다. 그 재화의 생산은 한반도에서 들어온 문물·기술을 통해 이루어졌다. 앞서 말했듯, 당시 왜왕은 국제교류를 주도하되 독점하지는 못했다. 오키미는 생산과 직결된 도래 문물과 기술을 가장 빨리 손에 넣었으나 독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처럼 왜의 국제교류는 단순히 동아시아와 열도사회의 특산물 교환이나 국가와 국가 간 군사적 동맹에 제한된 것이 아니었다. 열도 바깥 사회가 열도사회에 전한 문물과 생산기술이 열도의 생산·분업을 자극하고 그 결과 생산된 문물이 다시 동아시아로 흘러 들어갔다. 요컨대 국제정치의 배경에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얽혀 분업하는 국제적인 경제 관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왜국사, 백제사, 가야사, 국제관계사 모두, 이 놀라울 정도로 국제적이고 초월적인 생산과 분업의 연쇄생산에 존재했던 흥망성쇠의 역사였다.

이 복잡한 연쇄 관계가 왜의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 대수장(大首長)반란의 국제적인 환경

-반란을 일으킨 대수장

5세기 왜의 외교는 왕과 신하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국제교류를 바탕으로 발전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왕권외교는 확실히 성행했다. 4세기 후반~5세기 경 왜 왕권에는 국제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수장 및 도래인으로부터 다양한 국제정보가 흘러 들어왔을 것이다. 5세기 왜의 정치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제사회와 접촉했다.

한편, 이러한 교류는 오키미도 모르는 사이 신하들이 국제적인 대립에 휘말리는 도화선 역할도 했다. 이들의 대립은 구조적인 특성상 왜의 정치·외교문제로 이어지기 쉬우며, 그렇게 되면 왜는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지고 만다. 구체적인 사례는 대수장의 반란에 대한 전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기』 진구(神功) 62년조 『백제기(百濟記)』에는 442년 오키미로부터 신라 공격을 명받아 한반도로 떠난 사치히코(沙至比跪)라는 인물이 언급된다. 사치히코는 신라로부터 미녀 2명을 받고 신라가 아닌 가야를 공격하였다. 공격을 받은 가야국왕은 백제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를 안 오키미는 크게 분노했다.

이 전승에 등장하는 사치히코는 오키미의 가문과 외척관계를 맺고 5세기 왜의 정치·외교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가쓰라기노소츠히코(葛城襲津彦)다. 가쓰라기씨의 본거지는 나라(奈良) 분지 남서부 곤고산(金剛山)·가쓰라기산의 동쪽 기슭이었다. 최근 나라 현 고세시(御所市) 난고(南郷) 유적군 조사 등을 통해 5세기경 이 지역에 고도의 기술을 가진 도래인이 모여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가쓰라기의 수장이야말로 왕권외교의 적극적인 지원자임과 동시에 독자적으로 국제사회와 교류하여 본거지에 도래인을 데려 온 굴지의 대수장이었다. 이들이 신라와 연계하여 오키미의 외교 정책과 충돌한 것이다.

또한 『서기』 유랴쿠(雄略) 7년 시세조(是歲條)에는 5세기 후반 기비(吉備)씨가 신라와 연계해 유랴쿠 오키미에 대한 반란을 계획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유랴쿠 오키미는 기비노카미즈미치노오미타사(吉備上道臣田狭)의 미모의 아내를 빼앗고자 그를 미마나노쿠니노미코토모치(任那国司)로 임명했다. 부임지인 임나에서 오키미가 아내를 빼앗았다는 사실을 안 타사는 반란을 결심하여 비밀리에 신라에 접근했다.

임나는 야마타이국 시대에 왜와 긴밀하게 교류했던 구야한국(狗耶韓國)의 후예, 즉 금관가야에 해당한다.²⁷⁾ 또한 기비씨는 현재의 오카야마(岡山) 부근을 본거지로 두고 있었으며 오키미에게 후비(后妃)를 바쳤다고도 전해지는 대수장이다. 그런 기비씨가 금관가야를 거점으로 신라와 연계해 오키미에 대항하였으므로 이는 큰 사건이었다.

-반란의 이면

앞서 사치히코가 공격했던 가야는 왜와 오래 전부터 교류했던 가야 남부가 아

27) 역주, 미마나(任那) : 한국어로는 임나. 가야 남부 지역이라는 주장도 있고, 가야인이 일본에 건너가 세운 소국(小國)이라는 주장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닌 가야 북부, 즉 경상북도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뜻한다. 고고학적 조사에 따르면 사치히코 사건이 일어난 5세기 중엽은 대가야의 부흥기이자 왜와 교류를 시작한 시기였다. 이 때, 오래 전부터 왜의 수장층과 교류를 가졌던 가야 남부 지역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어 신라의 영향 하에 놓여 있었다.

5세기 후반 기비씨가 금관가야를 발판으로 신라와 동맹을 맺으려 한 『서기』의 기록은 가야 남부와 신라의 관계에 왜의 수장이 휘말렸음을 전해 준다. 가쓰라기는 가야 남부를 통해 신라와의 관계를 다지는 한편 대가야와 대립하여 왜의 동맹국인 백제와 마찰을 일으켰다. 기비와 가쓰라기의 국제관계는 왜와 오래 전부터 교류해 온 가야 남부를 주축으로 움직였던 것이다.

한편 당시 오키미는 백제와의 관계 강화만이 아닌 급성장하고 있던 대가야와의 관계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당시 왜의 외교 상황을 기록한 일급 자료 『송서(宋書)』에 의하면, 5세기 경 역대 왜왕들은 복잡해진 한반도 정세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 송나라의 책봉을 받아 작위(爵位)를 얻었다. 그를 바탕으로 백제와 연계해 고구려와 강하게 대립했다. 왜왕이 송에 대가야의 군사적 지배를 인정하는 작위를 요구한 것은 제왕(濟王)²⁸ 시기였다. 제왕은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은 443년부터 송에 사절을 보내기 시작했다. 443년은 사치히코가 대가야를 공격한 직후다. 사치히코와 왜왕의 대가야를 둘러싼 대립과, 제왕의 대가야를 염두에 둔 대중국외교는 연관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제왕 즉위시기 왜의 정치 문제를 살펴보면, 당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송서 왜국전』의 찬(讚)·진(珍)·제(濟)·흥(興)·무(武)로 이어지는 왜의 다섯 왕 중 진과 제의 친족관계만이 빠져 있다. 필시 두 왕의 친족 관계는 단절되었을 것이다. 또한 『서기』에 따르면 제왕을 모델로 했을 것으로 보이는 인교(允恭)오키미의 시대에, 전대 오키미 한제이(反正)의 장례 문제를 두고 오키미와 가쓰라기노소츠히코의 손자(또는 아들) 다마타노스쿠네(玉田宿禰)가 충돌하였다고 한다. 이 때 오키미가 병사를 보내 다마타노스쿠네를 살해했다.

가야 남부를 통해 신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대가야와 대립한 가쓰라기의 수장파, 백제와 연계하여 대가야와 교류하려던 제왕은 즉위 초기부터 왕권외교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을 것이라 보인다. 제왕이 송에 가야의 군사권에 대한 작위

28) 역주, 제왕(濟王) : 인교(允恭) 오키미로 추측된다.

를 요구한 것은 대가야 문제에 대해 왜의 정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송의 힘을 빌려 주도권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제왕 이후에도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다.

『서기』에 의하면 인교(允恭)의 아들이자 다음 오키미로 즉위한 안코(安康)가 재위 3년만에 가쓰라기씨와 깊은 연관이 있었던 마요와노오키미(眉輪王)에게 암살당했다고 한다. 이후 안코의 동생인 유랴쿠(雄略)가 즉위하였는데, 그 경위는 『송서 왜국전』 상소문의 “왜왕 무(武)가 갑작스레 부형(父兄)을 잃었다”는 기록과 동일하다. 이 무왕이야말로 유랴쿠 오키미의 모델이 되었다 여겨진다.

유랴쿠와 대립하던 기비노카미즈미치노오미타사(吉備上道臣田狹)는 가쓰라기씨와 혼인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 『서기』가 편찬용으로 참조·인용한 사료에 유랴쿠가 빼앗은 타사(田狹)의 아내가 실은 인교가 살해한 다마타노스쿠네(玉田宿禰)의 딸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당시 왜왕은 가야 남부를 통해 신라와의 관계를 강화한 기비씨·가쓰라기씨 등 대수장의 연계로 인해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음이 틀림없다.

-대악천황(大惡天皇)

이러한 대혼란의 시기에 즉위한 무왕은 왜의 다섯 왕 중 최악의 국제정세에 직면한 왕이었다.

우선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漢城)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고 개로왕(蓋鹵王)이 전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멸망의 위기를 맞은 백제는 왕의 형제인 문주왕(文周王)을 즉위시켰고 남쪽의 웅진으로 천도했으나 왕권은 쉽사리 안정되지 못했다.

게다가 왜왕의 권위를 뒷받침하던 송도 쇠락하여 479년 남제(南齊)로 바뀌었다. 이 사이 중국남조와 대립했던 북조 위(魏)가 계속 남하하였고 한반도 서해안에도 적국인 고구려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왜는 남조와의 교류를 유지할 해상 경로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심지어 무왕에게는 북위에 의지한다는 선택지조차 없었다. 472년, 백제가 북위에 처음으로 조공하였으나 북위는 이미 고구려와 손을 잡은 상태였기에 차가운 태도로 응했다. 무왕이 북위에 접근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신라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왕은 쉽사리 신라와 우호관계를 맺지 못했다. 앞서 말했다시피 당시 왜의 유력 수장은 가야 남부를 통해 신라와의 관계를 강화시켰으며 그 자체가 왜왕에 대한 위협이 되었다. 설불리 접근하면 수장들이 저항할 우려가 있었다.

송이 멸망한 후, 무왕이 유일하게 적극적이었던 외교정책은 백제에 대한 지원이었다. 이 당시 왜왕의 백제 지원은 깊은 의리조차 느끼게 하는데, 거기에는 ‘무카하리(質)’라 불린 사람들의 공이 컸다.

‘무카하리’란 왕의 대리로 상대국에 체재하는 외교관과 유사한 존재였다. 그들은 상대국의 왕이나 외교 실무 담당자에게 선진문물·기술자 등을 제공하면서 본국과의 우호관계를 추구하는 전략적 인물이었다. 이 중에는 왕의 아들 또는 형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두 나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백제 개로왕도 형제인 곤지(昆支)를 왜왕에게 파견하여 왜와 백제의 외교 관계를 다졌다.

475년 개로왕이 전사하자 무왕은 곤지의 아들 말다왕(末多王)을 왜에 체류시켰고 곤지를 백제로 돌려보내 문주왕의 측근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곤지가 사망하고 문주왕도 신하의 계략으로 암살되고 말았다. 뒤를 이은 문주왕의 아들 삼근왕(三斤王)도 급사했다. 다음 후보로 지목된 것이 아직 왜에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곤지의 아들 말다왕이었다. 479년 그가 즉위하여 백제의 동성왕(東城王)이 되었다.

동성왕의 즉위와 관련하여 『서기』 유랴쿠 23년 4월조는 말다왕에게 병기(兵器)와 쓰쿠시국(筑紫国)²⁹⁾의 병사 500명을 주어 백제로 보냈다고 전한다. 또한 쓰쿠시의 아치노오미(安到臣)·우마카이노오미(馬飼臣) 등이 선단을 이끌고 고구려와 전투를 벌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쓰쿠시 세력이 동성왕 즉위에 협력했던 듯하다. 이 무렵 전라남도 송산강 유역에 등장한 전방후원분(前方後円墳)에는 북부 규슈계열의 석실이 존재하여 무왕이 진행한 백제 지원 정책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무왕의 시대는 고대 열도의 왕권이 중국왕조의 책봉체제에서 독립하여

29) 역주, 쓰쿠시국(筑紫国) : 고대 일본의 행정구역 중 하나로 현재의 후쿠오카 현 동부에 위치했으리라 짐작된다.

국가형성을 위한 정치조직·제도를 준비했던 시대로, 고대사연구 분야에서도 특히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고대 일본의 순조로운 성장 과정으로 파악하면 역사상 사실과는 동떨어지게 되고 만다. 앞서 말했듯 이 시기 왜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우선, 예전처럼 중국왕조로부터 책봉을 받는 국제적 조건이 상실되었다. 열도사회와 국제사회는 다층적으로 연계하여 왜 왕권에 도전하며 변혁을 요구했다. 『서기』에서 무왕(유랴쿠)을 독단적이고 타인을 신용하지 않으며 살육을 일삼는 ‘대악천황(大惡天皇)’이라 기록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강압적인 정권운영과 정치개혁을 실시한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아무리 정치개혁이 진행되었다 해도 이후 왜 왕권에 ‘안정적인 성장’이 보장되었을 리 없다.

-이와이(磐井)의



한국 광주시 월계동 고분

난(亂)

자신만의 강렬한 방식으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간 무왕 사후, 왜의 왕위는 단절되었다. 왕통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고사기(古事記)』와 『서기』조차 무왕 이후 왜의 왕위가 단절을 되풀이한다고 전한다. 이러한

왜 왕권에게 백제 지원에 협력하는 규슈 세력과의 관계는 특별한 것이었다.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엽, 나라 분지를 중심으로 긴키 지역에 왕성히 유입된 아소(阿蘇) 산 분홍빛 돌이 그 증거다.

케이타이(繼體)오키미의 무덤이라 추측되는 오사카부 다카쓰키시(高槻市)의 이마시로즈카(今城塚)고분에서 출토된 석관 파편도 이 돌이었다. 케이타이의 출신에 대해 『고사기』는 오우미(近江)라 하고, 『서기』는 에치젠미쿠니(越前三

国)³⁰⁾ 라 하는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어찌됐든 왕위 단절의 위기 속에서 즉위했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게이타이는 즉위 전부터 백제 왕권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듯하다. 와카야마 현(和歌山県)³¹⁾ 스다하치만신사(隅田八幡神社)에 전해지는 인물화상거울에 새겨진 글귀에 이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503년 막 즉위한 백제 무령왕(武寧王)이 왜의 오시사카(忍坂)에 궁을 짓고 있던 즉위 전의 게이타이에게 직공을 보내어 인물화상거울을 만들었다고 한다. 무령왕은 게이타이를 유력한 차기 왜왕 후보로 보고 관계를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 실제로 게이타이는 즉위 후 백제와의 관계를 중시했다. 이들 간에도 쓰쿠시세력의 협력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서기』 게이타이 6년 4월 헤이인(丙寅)조에 의하면 게이타이 오키미는 백제에 보낼 사절에게 쓰쿠시의 말 40필을 하사했다.

그러나 게이타이 시대 말기, 쓰쿠시세력이 왜 왕권에 반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이(磐井)의 난(亂)이다. 『서기』에 의하면 이와이의 난은 게이타이 21년(527년)에 발생했다. 오우미노케나노오미(近江毛野臣)가 게이타이의 명을 받아 6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임나(任那)로 향하던 중이었다. 일찌감치 모반을 꾀하고 있던 쓰쿠시노쿠니노미야쓰코(筑紫国造) 이와이가 신라에게 뇌물을 받아 히노쿠니(火)·도요노쿠니(豊)³²⁾에 세력을 뻗어 왜와 한반도의 해로를 차단했다. 그 다음해, 게이타이의 명을 받은 모노노베노아라카히(物部麿鹿火)가 간신히 이와이의 군을 제압했다. 이와이의 아들 구즈코(葛子)는 아버지에게 연좌되는 것이 두려워 가스야노미야케(糟屋屯倉)³³⁾를 현상하며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난의 전말에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는 야마오 유키히사(山尾幸久)³⁴⁾가 지적한 것처럼 530년~531년의 가야 정세와 관련이 있다. 즉 529년, 신라의 압력을 경계한 대가야왕이 왜왕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자 신라와 연합한 이와이가 그 지원을 방해하려 난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기』

30) 역주, 오우미(近江)·에치젠미쿠니(越前三国) : 일본에 존재했던 지방 행정구역. 오우미는 혼슈 북부와 중앙부, 에치젠미쿠니는 혼슈 북부 동해 연안의 호쿠리쿠 지역.

31) 역주, 와카야마 현(和歌山県) : 일본 혼슈 남서부, 기이반도 남서단에 있는 현.

32) 역주, 히노쿠니(火)·도요노쿠니(豊) : 고대 일본에 존재했던 지방국가의 하나.

33) 역주, 가스야노미야케(糟屋屯倉) : 미야케(屯倉)란 왜의 지배 제도 중 하나로 전국에 설치한 직할지를 뜻한다. 즉 가스야노미야케는 이와이가 가지고 있던 일부 지역.

34) 역주, 야마오 유키히사(山尾幸久) : 1935년~. 일본의 역사학자. 전공은 일본고대사이며 독자적인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게이타이 25년(531년) 『백제본기(百濟本紀)』가 “들은 이야기로는 일본천황 및 태자 황자가 함께 붕어했다”고 기록하는 이상사태가 발생했다. 게이타이와 왕자가 함께 사망한 것이다. 이 의심스러운 죽음은 이와이의 난이 왕권 내부에 혼란을 불러 왔음을 뜻한다.

이와이의 난의 경위로 볼 때 게이타이 왕권의 외교 정책을 돕던 쓰쿠시 세력의 배신에는 『서기』의 말처럼 신라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쓰쿠시 세력이 475년 이후 백제 부흥에 협력했다는 것은 앞서 말했으나, 이 시기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우호적이었으며 5세기 말에는 혼인 동맹까지 맺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백제와 밀접한 관계였던 쓰쿠시 세력이 백제를 통해 신라와 접촉했을 수 있다. 게다가 6세기 전반, 백제도 대가야와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관계를 통해 보면 신라와 대가야가 대립했을 때 이와이가 신라에 가담한 것도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이는 왜왕과 군신관계를 맺은 버젓한 왕의 신하였다. 『서기』에는 이와이가 오우미노케나노오미(近江毛野臣)와 함께 게이타이의 궁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은 기록마저 보인다. 이와이는 생전에 거대한 전방후원분을 만들고 있었다. 후쿠오카 현(福岡県)³⁵⁾ 야메시(八女市)의 이와토야마(岩戸山)고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이가 국제사회를 바라보던 시각은 5세기 가쓰라기나 기비의 주장과 동일했으며 왜왕의 외교정책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방후원분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획일적인’ 왜인 사회를 왜왕의 지배에 따라 일정 구역에 통제된 사회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열도 각지의 주장들에게 있어서 대외관계는 공동체의 존망과 깊은 관계가 있었으며, 열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선택되고 이루어졌다. 왜의 신하였던 주장들조차 백제·신라·가야와 왜왕과의 관계를 얼마든지 저울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2장. 도래인의 ‘신체’와 기술·능력·문화

1. 기술자의 도래와 도래계 씨족

35) 역주, 후쿠오카 현(福岡県) : 일본 규슈 북부에 위치한 지역.

-도래하는 기술자의 ‘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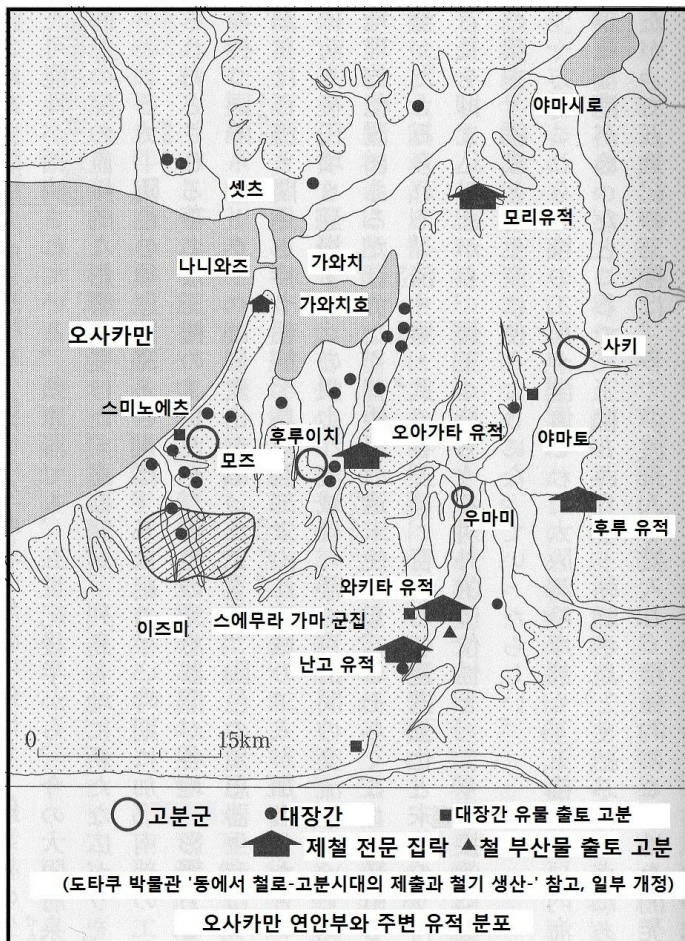
왜인사회의 생산 활동과 직결된 도래 문물과 기술은 왜인을 국제사회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한 그들이 왜의 역사를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물과 기술을 열도에 가져 온 사람들이야말로 도래인이다. 앞서 말했듯 지식과 기술의 경우 도래인의 ‘신체’가 ‘상자’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사전이나 교과서의 설명처럼, 도래인이 한반도 및 중국에서 최신 기술을 가지고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시대에 왕성하게 이루어진 기술자 도래의 본질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왜의 수장들은 도래인이 자신의 신체를 통해 전하는 지식과 기술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신체 그 자체가 열도에 정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았다.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귀국하는 도래인들도 적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부임처인 왜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왜에 남겨둔 채 귀국하는 도래인도 있었다. 도래계 씨족의 조상들조차 열도에 정착한 도래인이라고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실은 『서기』가 기록하고 있는 왜왕을 모신 도래계 씨족의 선조들도 어디서 죽고 묻혔는지 대부분 알 수 없다.

한편 왜의 수장들은 이런 형태로 도래된 지식과 기술을 입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교류를 지속해야만 했다. 기술과 능력은 도래인의 ‘신체’를 통해 전해졌기에 도래인이 죽으면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왜인들은 도래인의 공방에서 지도를 받아 분업적으로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신 기술이 도래인의 손을 떠나 열도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점을 보아, 왜인들은 총체적인 기술을 쉽사리 습득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고도의 생산기술이 한반도를 통해 막 도래했을 무렵, 왜인들은 도래인에게 가르침을 받아 정해진 작업을 하는 것만 해도 힘에 부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도래 기술자를 잃으면 왜의 수장은 새로운 도래인의 ‘신체’를 국제사회에 요청해야만 했다. 그를 위해서는 국제분쟁에 끊임없이 관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5세기 경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이를 한 지역의 수장이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앞서 말했듯 각 지역의 수장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왕권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 왜왕의 외교·대외전쟁에 결집·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특히 가야 남부 지역과 독자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그곳에서 기술자들을 불러왔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정세에 독자적으로 관여한 경우, 기비·가쓰라기처럼 왜왕의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분쟁에 뛰어들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도래인을 통해 독자적으로 생산했던 일본 각지의 스에키토기 가마의 대다수가 5세기 중엽까지 모습을 감추기도 했다. 또 가야계 도래인의 도움을 받아 철기를 생산했던 기비의 구보키야쿠시(窪木薬師)유적이 5세기 후반 일시적으로 쇠퇴한 시기는 왜의 수장들이 한반도 정세에 휘말리며 여러 분야에서 대립했던 시기와 겹친다. 결국 이러한 대립·분열을 극복할 수 없었던 수장은 힘을 잃고 그들이 보유한 도래계 생산기술도 그 맥이 끊어졌던 것이다.



-왜 왕권의 공방(工房)

오사카만 연안에 위치한 왜 왕권 소유의 공방은 상황이 달랐다. 이 공방은 열도 각지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5세기 후반, 오사카 동부 지역의 가와치(河内)에서는 대장간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기나이(畿内)³⁶⁾ 최대의 대장간 집락이라 평가되는 오사카 오오아가타(大泉)유적에서는 대량의 철기가 생산되었고 철 소재도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된다. 스에키토기의

경우, 현재의 오사카 센보쿠(泉北)구릉에 존재했던 스에무라(陶邑)가마의 직접적

36) 역주, 기나이(畿内) : 교토에 가까운 다섯 지방(야마시로·아마토·가와치·이즈미·셋츠).

인 영향을 받은 가마들이 5세기 후반부터 열도 각지에 출현했다.

스에무라가마는 왜 왕권이 5세기 초반 가야 남부에서 기술자를 데려와 만든 왕권의 유명한 공방이다. 스에무라가마가 열도 각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직전, 가마의 국제 네트워크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백제 송산강유역의 기술자들이 5세기 중엽 전후부터 스에무라의 스에키토기 생산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두 지역의 교류로 송산강유역에는 왜의 전방후원분까지 만들어졌다. 이곳은 왜와 백제의 연결 지점에 위치했으며 왜왕이 파견한 견송사의 배도 이곳을 공유하여 중국 산둥반도로 갔으리라 추측된다. 제(濟)·흥(興)·무(武)의 세 왕은 백제와의 관계 강화 및 송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력 수장을 통제했다. 또한 왜왕은 도래계 기술·문화의 집중·편성·재생산에 자신이 가진 대외적 우위성에 입각한 힘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이들 공방이 존재했던 오사카만 연안 지역에는 왜왕이 세토내해(瀬戸内海)³⁷⁾로 나가기 위한 중요한 항구가 있었다. 그 항구는 서일본·한반도와의 교류 거점이 되었다. 5세기 경 왜 왕권은 많은 도래인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했다. 그 중에서도 5세기 후반, 오사카 요도가와(淀川) 하구에 있던 가와치호(河内湖)의 치수(治水)와 가와치호의 물을 오사카만으로 보내는 ‘인공 강(堀江)’의 굴삭 작업에 성공한 일은 의미가 크다. 긴키 지역 사람들은 ‘인공 강’ 부근에 만들어진 항구 나니와즈(難波津)를 통해 세토내해로 손쉽게 갈 수 있었다. 왜 왕권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으면서 도래기술자를 모으거나 생산품을 왜의 각 수장들에게 분배할 때, 또는 한반도로 보낼 때에도 이 오사카만 부근은 지정학적 요충지로 작용했다.

이처럼 5세기 후반 각 지역의 국제 네트워크는 복잡해져 갔다. 그러한 가운데 각 지역 수장의 대외적 능력을 증명할 재화(財貨)를 공급·분배하는 체제가 오사카만 연안을 중심으로 왜왕에 의해 단계적으로 갖추어졌다. 왜 왕권 외교 하에서 독자적으로 가야와 교류하던 몇몇 대수장이 정책에 실패하여 세력이 약해진 한편, 왜왕의 곁에 모이는 수장은 계속 늘어났다. 5세기 후반 왜 왕권이 혼란의 시기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까지 강화했던 것은 이러한 경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왕권의 공방이 집중된 가와치에 거점을 두었던 모노노

37) 역주, 세토내해(瀬戸内海) : 일본의 세 섬, 즉 혼슈·시코쿠·규슈에 둘러싸인 바다.

베(物部)가문이나 오오토모(大伴)가문 등이 급성장하게 된다.

-도래계 씨족의 탄생

왜 왕권의 오사카만 부근 공방이 급성장하고 얼마 안 되어 도래계 생산기술에 새로운 움직임이 생겨났다. 도래계 씨족이 등장한 것이다.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하타(秦)씨, 아야(漢)씨 등 도래계 씨족이 조성되었다.

도래계 씨족의 등장은 왜의 도래계 생산기술 확보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다. 예를 들어 『일본후기(日本後記)』 고닌(弘仁) 2년(811년) 5월 헤이신조(丙辰条)의 기록은 야마토노아야(東漢)씨 출신의 사카노우에(坂上)씨와 관련해 “이 가문은 무(武)를 연마하고 매를 조련시키며 말을 키운다. 이를 후손에게 전하여 끊이지 않게 한다”고 쓰고 있다. 사카노우에씨는 세이이타이쇼군(征夷大將軍) 다무라마로(田村麻呂)³⁸⁾로 대표되듯 무인을 배출하던 고대의 명문가였다. 이들의 무인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활이나 말, 매를 다루는 기술은 야마토노아야씨가 관장한 도래 기술을 자손이 이어받은 것이었다. 말하자면 도래계 씨족이란 혈연을 토대로 도래 기술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조직이었다. 도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조직이 왜인사회에 등장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왜 왕권 공방의 성장만이 아닌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독자적, 안정적으로 도래 기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왜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던 백제는 475년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약화되었고 왜왕의 외교정책을 지지하던 송도 479년 멸망했다. 왜와 오랫동안 교류하던 가야 역시 점차 신라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 영향력은 6세기가 되자 더욱 커졌다. 도래계 생산조직을 재편성하려던 왜 왕권은 새로 건너온 도래인에게만 의존해서는 확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당시의 국제 정세가 허용하지 않았다.

도래계 씨족은 정치적으로 편성된 씨족집단이었으므로 필요에 따라 혈연관계가 없는 기술자가 포함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본래 유력 수장의 지배를 받다가 수장의 힘이 약화되자 하타씨나 아야씨의 집단에 편입된 도래계 기술자들이 존재했다. 아야씨의 경우 기본적인 씨족형성을 끝낸 6세기 이후에도 새롭게 도래한

38) 역주, 세이이타이쇼군(征夷大將軍) 다무라마로(田村麻呂) : 세이이타이쇼군이란 이민족을 정복하기 위한 군사령관을 뜻한다. 사카노우에 다무라마로는 고대 세이이타이쇼군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다.

기술자들을 이마키노아야(今來漢)라 부르며 아야씨의 한 갈래에 포함시켰다.

5세기 후반~6세기 경, 왜 왕권은 씨족집단 기술자를 통한 재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의해 독자적·안정적·양적으로 기술자를 확보하여 공방을 더욱 성장시켰다. 6세기 이후 씨족집단과 생산거점을 왜의 각 지역에 배치하였고 왕권과 연계된 경영조직체 ‘미야케’를 통해 이를 운영했다. 왜 왕권은 각 지방의 수장을 그 지방 미야케의 실질적인 관리자로 임명했다. 지방 수장의 힘을 이용해 왕권을 주축으로 한 열도규모의 거대 생산·분업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것이다. 한편, 각 지역 수장도 이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혼란의 시기에 잃어버린 지위와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

2. 한자문화와 도래인의 정치적 ‘신체’

-오경박사의 정치적 실태

이러한 대개혁으로 인해 생산 활동에 대한 왜왕의 영향력은 커진 한편 한반도의 영향력은 작아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왜의 생산 활동에 씨족과 미야케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 가운데, ‘기술혁신의 시대’에 만들어진 도래계 기술을 이용한 생산품에 도래 요소의 영향력은 확실히 줄어들었다. 그러한 가운데 왜에는 거대 조직이나 왕권 네트워크를 모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노하우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노하우는 한반도에서 전해진 지식에서 얻었다. 실제로 왕권 공방의 확대나 미야케 경영 등은 백제의 제도를 크게 참고한 것이었다. 또 그 거대조직 안에서 왕과 신하의 권위를 세워주는 문물, 예를 들어 금과 은도 여전히 한반도에서 얻고 있었다. 한편, 한반도 국가들도 여전히 왜에게 생산품과 군사를 요구했다.

그러한 가운데 6세기가 되자 도래인에 대한 왜 왕권의 관심은 정치·군사·의식주 등에서 새로운 지식, 즉 정치력과 직결된 한자 기술자에게 쏠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왜에는 오경박사(五經博士)라 불리는 새로운 도래인이 등장하게 된다.

오경박사(五經博士)³⁹⁾란 본래 유교의 다섯 개의 기본 경전에 능통한 학자를

39) 역주, 오경박사(五經博士) : 고대 중국과 백제에서 주역, 시경, 서경, 예기, 춘추의 오경(五經)에 통달한 사람에게 준 관직. 일본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뜻한다. 중국의 전한 시대 한무제(漢武帝)가 처음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서기』 게이타이 7년(513년) 6월 백제로부터 오경박사 단양이(段楊爾)가 왔다는 것이 오경박사의 도래에 대한 첫 기록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남조 양(梁)의 무제(武帝)가 505년에 오경관(五經館)을 개설하여 교학을 중시하는 관리사관(仕官)을 임용하고 서적을 적극적으로 수집했다. 한편 5세기 후반 고구려의 공격으로 국가 존속의 위기에 빠졌던 백제는 6세기 초엽 무령왕(武寧王)의 시대에 국력을 회복하여 양(梁)에도 몇 번에 걸쳐 사절을 보냈다. 양국 교류의 영향으로 동맹국인 왜에 오경박사가 도래한 것이다. 이 때 오경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의학·역술 연구자와 승려까지 도래했다. 이들은 백제를 지원하는 왜에게 주어진 대가성의 의미를 강하게 갖는다. 이렇게 도래한 이들은 왜 지배층의 두뇌로 활약했다.

이들은 백제에서 후임자가 오면 귀국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즉 그들은 백제에서 교대로 찾아와 왜에 새로운 지식을 전해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지식의 갱신이 아니었다. 정치적 관계도 지속적으로 갱신되었다. 그 중에는 백제 관위를 갖고 백제 관제조직과 관계를 맺은 이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본국에서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한 채 왜 지배층의 자문역이 되어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왜에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적 ‘신체’임과 동시에 백제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정치적 ‘신체’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자문화를 가져 온 사람들

이 시기 왜는 양(梁)의 최신문화를 백제를 거쳐 바로 받아들였으므로, 오경박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 문화가 중국대륙→한반도→일본열도에 전해지는 속도는 예전과 비교해 빨라졌다. 왜가 본격적인 한자문화의 시대에 접어드는 것도 이 6세기경의 일이었다.

6세기에 시작된 왜의 문화 현상을 이 책의 초반에 소개한 니시지마 사다오의 동아시아 세계론을 통해 해석해 보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니시지마의 동아시아 세계론은 중국왕조를 주축으로 한 책봉제도가 동아시아 전체에 한자문화를 퍼트렸다는 설이다. 그러나 한자문화가 성숙해 가던 6세기경, 왜는 중국왕조와는 단절이라 해도 될 정도로 직접적인 교류를 하지 않았다.

물론 왜의 한자문화 수용과 대중국의외교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친위왜왕’인 히미코는 중국과 교류할 때 이미 한자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송의 책봉을 받은 왜의 다섯 왕, 예를 들어 무왕(武王)이 송 황제에게 보낸 상소문에는 중국의 사서·고전을 통해 얻은 높은 레벨의 한문 지식이 풍부하게 투영되어 있었다. 단, 열도에서 수준 높은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세력은 왜왕을 빼면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왜왕이 다른 왜인보다 앞서서 높은 수준의 한자문화를 익혔다는 증거이다. 중국왕조의 대외관계는 황제와 타국의 왕이 명분상 중화적 군신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따라서 왜의 외교를 주도했던 왜왕은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독점하게 되었다. 또한 이 교류가 한자·한어(漢語)로 이루어졌기에 왜인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한자문화를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왜왕은 한자를 자신의 능력만으로 사용하지는 못했다. 이미 한자를 익힌 도래인을 가까이 두고 참모로 삼았었다. 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해 살펴봤을 때, 히미코의 경우 유감스럽게도 누가 담당했는지 알 수 없다. 극히 일부의 도래인이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나 왜의 다섯 왕 밑에서 한자를 사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왕이 송에 보낸 상소문을 분석함으로써 그 윤곽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상소문의 한문 표현에 작성자가 보유한 한자문화의 계보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의 조상은 한인(漢人)을 중심으로 한 중국계 사람이라고 추측된다. 그들의 선조는 상소문보다 백여 년 앞선 한족정권, 진(晉) 왕조와 관계가 있으며 중국 화북(華北)지방이나 한반도 북방 낙랑군·대방군 등에서 활약했다. 4세기 초엽, 화북지방의 이민족이 진을 강남으로 몰아내고 낙랑군·대방군이 멸망하는 등 대 혼란의 시기가 찾아왔다. 진이 화북에서 쫓겨나자 남은 중국계 사람들 중 일부가 고구려와 백제에 유입되었다. 그들은 진왕조 시대에 익힌 한자를 고구려와 백제에서 사용하여 각 왕권의 정치·외교에 깊이 관여했다. 4세기 경 고구려·백제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이런 중국계 사람들의 공헌이 있었다.

이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5세기 즈음, 동맹국이었던 백제에서 왜로 건너왔다. 왜왕은 그들을 상소문 작성 등에 관여시켰다. 때문에 이 시대의 왜·백제·고구려가 중국과의 외교에 사용했던 한자 표현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이와 같이, 왜의 다섯 왕이 송과의 교류에 사용한 한자는 화북지방의 중국계

사람들이 한반도로 옮겨 온 한자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왜왕은 진의 한자문화를 계승한 그들을 긴박한 한반도의 정세에 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이리하여 5세기 경 한반도·일본열도 왕권에는 대립하든 동맹하든 간에 같은 한자문화를 공유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중국왕조와 책봉관계를 갖지 못한 6세기의 왜가 한반도를 거쳐 최신 한자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인 것도 5세기에 만들어진 이러한 문화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와 지역과 지배

이 시기 한자는 대중국의교만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5

세기 고분에서 출토된, 글귀가 새겨진 도검류가 그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예를 들어 교과서를 통해 잘 알려진 사이타마 현(埼玉県)⁴⁰⁾ 이나 리야마(稻荷山)고분 출토 철검이나 구마모토 현(熊本県)⁴¹⁾ 에타후나야마(江田船山)고분 출토 대검이 있다. 이 검에 새겨진 문구에 따르면 무왕 시대 지방수장은 왜왕의 측근인 도래계 문장 기술자의 힘을 빌려 왜왕과 강하게 결속했으며 이를 지방 정치에 이용하고자 했다. 또한 중국왕조 중심의 중화적 세계관과는 다른, 왜왕을 주축으로 한 ‘천하(天下)’관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5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지바 현(千葉県)⁴²⁾ 이나

【江田船山古墳出土大刀銘】
(治天)
□□下獲□□齒大王世奉事典曹人名无利弓 八月中用大□釜□并四尺迂刀 八十練
(六)(摺) (利) (寿)
□十□三寸上好□刀 服此刀者長□子孫注々得三恩也 不失其所統 作刀者名伊太加書者
張安也

【稻荷山古墳出土鉄劍銘】
辛亥年七月中記 乎獲居臣上祖意富比埵 其兒多加利足尼 其兒名呂已加利獲居 其兒名加
披次獲居 其兒名多沙鬼獲居 其兒名半呂比
其兒名加差披余 其兒名乎獲居臣 世々為杖刀人首奉事來至今 獲加多支齒大王寺在斯鬼
宮時 吾左治天下 令作此百練利刀 記吾奉事根原也

【王賜】銘鉄劍銘
王賜□□敬□
裏 此廷□□□□

5세기 경, 도검류에 새겨진 글귀

40) 역주, 사이타마 현(埼玉県) : 일본 혼슈 도쿄 부근 지방.

41) 역주, 구마모토 현(熊本県) : 일본 규슈 중앙부의 지방. 사이타마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리다이(稻荷台) 1호분에서 ‘왕사(王賜)’⁴³⁾ 이하 열 두 문자가 새겨진 철검이 출토되었다. 당시 왜왕이 수장에게 하사한 검에는 ‘왕사’로 시작하는 정형적인 문구를 새겼던 듯하다.

이는 5세기 중엽 이후 왜 왕권이 왜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계를 이어가는 매개체로, 또는 그 체계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표현하는 도구로써 한자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6세기 경 왜 왕권이 대중국외교와는 별도로 한자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한자가 가진 지배력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한자가 지배층에게 있어서 보편적·주체적·정치적 가치인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작용하자, 한자 수용은 단숨에 가속되었다.

이처럼, 한자문화가 국경을 넘나든 힘은 단순히 중국왕조의 압도적인 정치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한자 그 자체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자가 주체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높은 범용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도검류에 새겨진 글귀에도 책봉관계보다는 동아시아 각지의 지역적 변용의 역사가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나리아마 철검에는 진(秦)·한(漢)시기의 기록 매체에 기원한 ‘낙랑문자’ 및 고한음(古韓音)⁴⁴⁾의 문자용례, 도고쿠(東国) 지방 방언에 따른 인명까지 새겨져 있다. 이는 한자문화의 전래 과정에서 얻어진 지역 복합적 문화의 소산이라 해야 할 것이다. 왜에 한자문화를 전파한 도래인의 역사에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를 수용한 사람들의 역사가 뒤섞여 있었다.

3. 왕진이(王辰爾)의 전략

-왕진이의 도래

열도에 한자문화를 가져 온 도래인의 정치적이고 국경을 뛰어넘은 ‘신체’의 구체적 예로 6세기의 인물 왕진이(王辰爾)를 들고자 한다.

왕진이는 후대의 나라(奈良)의 귀족들 사이에서 이름 높은 역사적 인물이었다.

42) 역주, 지바 현(千葉県) : 일본 혼슈 도쿄 부근 지방.

43) 역주, 왕사(王賜) : 왕이 하사함.

44) 역주, 고한음(古韓音) : 고대 일본의 한자를 읽는 방식. 고대 백제의 방식이 그대로 유입되었다는 설이 있다.

덴표쇼호(天平勝宝)⁴⁵⁾ 3년(751년) 만들어진 한시집 『가이후소(懷風藻)』는 일본에 한자문화를 가져 온 도래인의 활약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진이(辰爾) 마침내 오사다(訖田)에서 가르침을 널리 전하다”는 문장이 눈에 띈다. 8세기 경 일본 귀족들은 왕진이를 일본의 한자문화를 창조한 위대한 인물로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서기』에 의하면 왕진이는 6세기 중반~후반에 긴메이(欽明)왕·비다쓰(敏達)왕 휘하에서 일한 도래계 인물로 후네(船)씨의 선조로 등장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왜왕의 신하가 되기 전 왕진이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단, 후세의 왕진이계 씨족 전승에서는 진이를 백제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도래인의 5세손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왕진이계 씨족의 계보는 같은 도래인인 가와치노후미(西文)씨족 계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도래 시기를 앞당겼음이 명백하기에 신뢰도가 낮다. 진이가 왕씨 성을 가진 채 활동했던 것, 왕진이계 씨족이 백제 출신이라 주장했던 점을 보아 진이는 6세기 중반 백제로부터 새롭게 도래한 인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다.

또한 진이를 선조로 하는 후네씨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最古)의 묘비명으로 판단되는 668년의 오우고(王後)⁴⁶⁾의 묘비명을 참고로 하여 살펴보겠다. 이 묘비명은 “후네씨 고(故) 오우고노오비토는 후네씨의 중조(中祖) 오우치진노오비토(王智仁首)의 아들인 나하코노오비토(那沛故首)의 아들”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에 의하면 오우고는 비다쓰왕의 시대에 왕지인(王智仁) 즉 왕진이의 손자로 태어나 스이코(推古)·조메이(舒明)왕의 신하로 일했으며 641년에 사망했다. 668년, 오우고는 그의 만형인 도라코노오비토(刀羅古首)의 무덤 가까이에서 부인과 함께 묻혔다. 『서기』에 따르면 왕진이는 비다쓰왕의 신하이기도 했기에 오우고가 태어났을 때 진이는 아직 생존했을지도 모른다. 왕진이는 실존인물임이 확실하다.

단, 묘비명에서 왕진이를 후네씨의 ‘중조(中祖)’라 하고 있다. 이를 ‘중흥(中興)의 선조’라 해석하면 왕진이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가 7세기 후반 무렵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역사학자 요시에 아키코(義江明

45) 역주, 덴표쇼호(天平勝宝) : 일본의 연호. 749년~757년.

46) 역주, 오우고(王後)의 묘비명 : 아스카시대의 관료 후네오우고노오비토(船王後首)의 묘비명. 668년에 해당하는 무진년(戊辰年)의 연도가 표기되어 있어 현재까지 발견된 묘비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연도를 가진다.

子)가 지적하듯, ‘중조’는 왕의 신하가 된 시점의 시조를 뜻하는 말일 것이다. 후네씨는 왕진이의 도래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구스노마가리노미야(樟勾宮) 행차

왕진이의 활동을 전하는 첫 기록은 『서기』 긴메이 14년(553년) 7월 고우시조(甲子条)에 나온다. 이에 의하면 구스노마가리노미야(樟勾宮)⁴⁷⁾에 행차한 긴메이왕은 대신(大臣)인 소가노 이나메(蘇我稻目)에게 명해 왕진이에게 ‘후네노미쓰키(船賦)’를 계산토록 하여 이를 기록했다. 이 공적에 의해 왕은 왕진이를 ‘후네노쓰카사(船長)’로 삼아 ‘후네노후비토(船史)’라는 성을 내렸다.

여기서 왕진이가 계산했다는 ‘후네노미쓰키’의 내용은 불명이다. 그러나 이를 ‘후네노미쓰키(船賦)’라 읽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선박을 통해 바친 공납물이라 해석한다. 또한, 왕진이가 ‘후네노미쓰키’를 계산하여 기록한 일은 구스노마가리노미야에 행차한 긴메이왕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후네노미쓰키’와 긴메이의 행차가 연관이 있을 거라 추측된다.

『서기』에 나오는 긴메이왕의 행차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모든 행차가 대외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구스노마가리노미야에 행차했을 때 긴메이왕은 외교상의 큰 안건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일이 있기 직전, 백제는 신라의 협력을 얻어 예전 수도인 한성에서 고구려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한성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신라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552년, 신라의 압박을 받은 백제의 성명왕(聖明王)이 긴메이에게 원군을 요청했다. 이는 구스노마가리노미야에 행차하기 전 해의 일이다.

백제의 원군 요청을 받은 긴메이는 다음 해 6월, 이에 응하기로 한다. 이후 백제에 사절을 보내 말 2필, 모로키후네(배) 2척, 활 50개, 화살 50개를 지원했다. 그 대가로 의(醫)박사·역(易)박사·역(曆)박사의 교대 및 역서(易書)·역본(曆本)·약품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때 긴메이가 백제에 제공한 매우 적은 양의 말·함선·활과 화살은 그가 원군 요청에 응하겠다는 생각을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후 백제는 원군 파견을 서두르도록 왜왕을 재촉하였으며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빈번히 사절을 보냈다. 구스노마가리야노미야 행차는 긴메이가 백제에

47) 역주, 구스노마가리노미야(樟勾宮) : 긴메이왕의 신사.

원군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다음 달에 이루어졌다. 행차의 시기상, 긴메이의 최대 관심사가 백제에 파견하는 군사의 준비였다는 점은 틀림없다.

한편 이 ‘구스노마가리야노미야’는 ‘구스(樟·楠, 녹나무)’와 강의 굴곡을 의미하는 ‘굽을 구(勾)’ 자가 붙어있는 신사로 현재의 오사카 히라카타시(枚方市) 구스하(樟葉) 인근 요도가와(淀川) 선착장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는 긴메이의 아버지 게이타이가 즉위한 구스하노미야(樟葉宮)가 있었다. 북측은 비와호(琵琶湖)로부터 흘러들어온 우지가와(宇治川)·기즈가와(木津川)·가츠라가와(桂川)가 합류하는 교통의 요지로 게이타이는 즉위 시 이 부근 수장들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신사의 호칭에 포함된 ‘구스(樟)’는 하천을 이용해 운반된 녹나무(구스노키)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8세기 경 요도가와 부근에서는 목재의 운반이 성행했는데, 『서기』 긴메이 14년 5월의 기록에는 오사카만에 운반된 훌륭한 녹나무로 불상을 만들었다는 요시노노테라(吉野寺)의 전승이 나온다. 당시 녹나무가 오사카만으로 흐르는 하천을 따라 이동했음이 증명된다. 구스노마가리야노미야는 녹나무 운반에 이용된 하천 교통의 요충지였으리라 여겨진다.

이 녹나무는 고대에 함선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서기』에는 ‘스사노오노미코토’가 삼나무와 녹나무의 용도를 함선 제조용이라 정했다는 신화가 등장한다. 『하리마노쿠니후도키(播磨国風土記)』⁴⁸⁾에도 “녹나무를 이용하여 배를 만든다”는 대목이 나오는 등 녹나무는 고대 함선의 주재료였다. 이제 원군을 준비하고 있던 긴메이가 행차 10개월 후 다수의 병마와 함께 배 40척을 백제에 보냈음을 주목해 보자(『서기』). 백제 지원을 결심한 긴메이는 틀림없이 녹나무를 벌채해 배를 만들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백제에 원군을 보내기로 결심한 긴메이의 구스노마가리야노미야 행차는 함선 재료 등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구스노마가리야노미야 부근 하천에는 요도가와 등을 이용해 운반된 녹나무가 쌓여 있지 않았을까? 문자기술자인 왕진이는 근방 수장들이 요도가와를 이용해 바친 물자를 신사 근처 선착장에서 계산·기록했을 것이다.

-왕진이와 외교

48) 역주, 하리마노쿠니후도키(播磨国風土記) : 나라 시대 초기에 편찬된 풍토기. 즉 역사서.

이 같은 왕진의 활약을 살펴보았을 때, 그가 백제에서 온 도래인이라는 사실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왕진이 백제의 원군 요청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왕진의 역할은 최신 지식과 기술로 왜의 군사적 준비를 보조하기 위해 백제로부터 건너 온 다른 박사들의 역할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왕진이 왕씨 성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매우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원군을 대가로 백제가 보낸 박사들 중 다수가 왕씨 성을 가지고 있었다. 왕진이 다른 박사들처럼 중국계 백제인이었다 추정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왕진이 왜의 외교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 사건도 백제의 전략적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 바로 『서기』 비다쓰 원년(572년) 5월 헤이신조(丙辰条)에 등장하는 유명한 ‘까마귀 깃털 상소문(烏羽の表)’ 사건이다.

이 사건은 건메이왕 31년(570년) 4월, 고시(越)⁴⁹⁾가 건메이에게 고구려 사절이 당도했음을 보고한 것에서 시작된다. 고구려가 왜에 정식으로 사절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고구려는 나날이 성장하는 신라에 대응하기 위해 적국이었던 왜에 접근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건메이는 바로 야마시로(山城)의 사가라카노코호리(相樂郡)에 객사(客舎)를 짓고 배를 보내어 사절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 직후 건메이가 서거하고 만다. 뒤를 이어 즉위한 비다쓰는 즉시 신하들을 객사에 보내 고구려의 ‘미쓰키모노(調物, 공물)’를 조사하였고 이를 전해 받았다. 왕진이 이미 ‘후네노미쓰키’를 계산한 적이 있음을 생각하면 이 때 고구려의 공물 검토에도 그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검토 작업에는 도래계 문서 전문인인 ‘후미히토’라는 사람들이 임했기 때문이다. 후네씨 성을 받았던 왕진도 후미히토였다.

이 때 왜왕에게 ‘미쓰키모노’와 함께 보내진 고구려의 국서(國書)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 국서가 까마귀의 깃털에 쓰여 있었기 때문에 후미히토들이 읽지 못했던 것이다. 왕진이만이 깃털을 뜨거운 김에 썬어 비단 천에 누르는 방법으로 문자를 찍어내었고, 국서를 읽는 데 성공했다. 크게 기뻐한 비다쓰는 왕진에게 자신의 곁에서 일할 것을 명령했다.

위의 기록 중, 고구려의 정식 국서가 특정 방식으로 밖에 읽을 수 없는 까마귀

49) 역주, 고시(越) : 현재의 후쿠이 현에서 야마가타 현에 걸쳐 있던 지역을 부르는 옛 말.

깃털에 쓰여 있었다는 이야기는 믿기 어렵다. 당시 고구려는 독특한 양식의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양식을 처음 접한 후미히토들이 읽지 못했다는 학설이 존재하는데 나 역시 그에 동의한다. 또한 왕진이만이 고구려의 한자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고구려 문자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백제는 처음부터 왜와 고구려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왕진이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오랫동안 대립하던 백제와 고구려는 당시 신라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있었으나 아직 적대 관계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진이가 비다쓰에게 접근할 경우 간신히 시작된 왜-고구려 간 외교관계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었다. 고구려는 570년, 573년, 574년에 걸쳐 사절을 보냈으나 첫 사절의 경우 사절단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 대사(大使)가 부하들에게 암살되었다. 두 번째는 의심을 품은 왜에 의해 접견조차 못하고 귀국조치 당했다. 게다가 귀국길 도중 고구려 사절 두 명이 송별을 위해 보내진 왜의 신하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세 번째 사절은 살해된 두 사람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전해진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배와 객사까지 마련해 가며 고구려의 사절을 맞이했던 왜가 고구려에게 깊은 불신감을 갖게 되었음이 틀림없다. 여기에는 왜왕과의 알현을 통해 백제의 전략적 의도를 대변한 왕진이의 영향력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위와 같이 6세기 경, 백제와의 관계를 중시하던 왜 왕권에 백제가 대가로 보내 온 지식인들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맞바꾸어 백제의 정치적 의도를 왜왕에게 전하는 ‘주재관’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졌다. 왕진이 또한 이러한 양국의 의도를 전하는 왕권 간 외교에서 활약한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이후 율령국가 시대 귀족들이 갖게 된 왕진이의 이미지에 이러한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오직 일본의 한자문화를 만든 위대한 인물이라는 과장된 이미지만 남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연민수(1998) 『일본역사』 보고사

홍윤기(1999) 『일본문화사』 서문당

한국사 사전 편찬회(2007) 『한국 고증세사 사전』 가람기획

두산백과(www.doopedia.co.kr)

일본 위키디피아(<https://www.wikipedia.org/>)

치카즈아스카 박물관(<http://www.chikatsu-asuka.jp/>)

후쿠오카 시립 미술관(<http://www.fukuoka-art-museum.jp/>)

국립문화재연구소(<http://portal.nricp.go.kr>)

미술용어대사전

(<http://terms.naver.com/list.nhn?cid=42635&categoryId=42635>)

세계인문지리사전

(<http://terms.naver.com/list.nhn?cid=51778&categoryId=51778>)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http://terms.naver.com/list.nhn?cid=44621&categoryId=44621>)

중국 역대 인명 사전

(<http://terms.naver.com/list.nhn?cid=42981&categoryId=42981>)

日本語抄録

古代東アジアでは、多くの交流が行われていた。特に韓国と日本は、はっきりとした目的を持ち、活発に交流していた。韓国は、日本が必要とする技術者や鉄など先進の文物を与え、日本は兵と物資を支援した。これは、歴史を動かす巨大な力となった。

このような交流は、中央政府と中央政府だけのものではなかった。中央政府と地方政府、地方政府と地方政府、または個人と個人の間にも交流は存在した。重要なのは交流の規模ではなかった。本書で見られるように、それより規模の小さな交流や個人間の交流でさえ、歴史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た。

本書では、古代東アジアで行われた交流の方法、特に朝鮮半島から日本に渡った渡来人が、日本史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ていたのかを論じる。朝鮮半島からの渡来人は、日本に稲作、鉄器の作り方、陶磁器の作り方、漢字文化など多くの技術や知識を伝えた。日本はその代わりに、軍事、食糧など多くの物資を支援した。両国の交流は、乱世の朝鮮半島で戦争を行う力となり、その戦争によって国が滅び、また建国された。巨大な歴史の流れの中には、民間交流から始まった小さな動きが存在していた。

作者の田中史生は、このような交流史を通じて古代東アジアの交流史を理解する新しい観点を提示している。また、古代史研究にとって何が重要なのか、日韓交流を発展させるためには何を把握する必要があるのかを論じている。